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인과는 절대 가까이하지 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4호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조계종 '직장협의회' 구성 종무원 노동 개선 신호탄

공양주보살, 사찰종무원 등등 불교계 종무는 스님들 외에도 많은 재가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런 재가자들은 무보수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는 전문 종사자들도 포함돼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계 최초로 이런 종사자들의 근무와 사업 참여 등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제20대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정유탁, 이하 종무원조합)는 9월 7일 조계종 총무원 측과 노사협의회 구성을 9월 1일자로 타결했으며 '직장협의회'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가 2005년 명칭을 변경하며 탄생한 조직으로 당시 노조 설립이 구성원들의 입장차이로 무산된 이후 종무원 상조 ·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정유탁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사협의회는 총무원 측과 종무원 조합에서 각각 4인을 대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타결된 노사협의회는 사회법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의거한 것으로 사회에서는 이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쌍방의 상호소통 창구로 협의체를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종무원조합은 올해 3월부터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종교단체라는 특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노동 아닌 헌신만 강조

이번 조계종 총무원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종교계 내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참여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종교계 종무기관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그동안 요원했다.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노동'보다 '헌신'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발행인은 "성직자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보다는 '헌신' '봉사'의 개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개념에서 정당한 요구

9월 1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승인
종교계 중앙기관서 도입 첫 사례
총무원 · 조합서 각 4인 선발키로
일방적 지침서 합의통한 진행 변경

노동 인식 떨어지는 종교 특수성
종교 노조 · 협의체 있는 곳 '극소수'
종교특수성 감안한 새 문화 기대

가 신심과 신념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인 성직자와 생계가 달려있는 피고용주인 비성직자가 노무 관계형성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노동 개념으로 보면 바깥보다 종교 내부가 더욱 열악한 환경이 형성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계에서 노동 인식은 불교계가 가장 앞서 있다. 이번 중앙종무기관의 노사협 타결에 앞서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과 불교방송을 비롯한 교계 언론사 등이 노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중앙종무기관은 협의체 구성이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가톨릭 병원을 비롯한 산하 기관도 노조설립 문제로 수년째 격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개신교는 개별교회 주도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대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에서 조직화가 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인 박영락 목사는 "안타깝게도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등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개별교회 위주로 제도를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종교특수성 감안한 노사문화 필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전반의 노사시스템 확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각 종교가 교리 내에 노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의 노동현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작 종교 내부 노동 인식이 열악한 만큼 인식 개선도 이뤄나갔으면 한다"며 "일방적인 지시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진행, 이로 인한 종사자들의 참여 증가, 종권 변화에도 유지되는 고용안정성과 이에 따른 전문화 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다만 시민단체와 같이 종교계도 단순히 물질적 요인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각 종교체계에 제대로 작동하는 구성원 협의체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홍수 피해' 미얀마서 펼치는 자비의 손길

미얀마 홍수피해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총재 자승)이 파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6일 미얀마 홍수피해 지역 조계종긴급구호단 파견 출정식을 열었다.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복지재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단은 6일 밤 10시 미얀마 양곤에 도착, 보트수송을 통해 약 5500만원 분량의 식수와 식량을 전달하며 빠른 구호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 7~8월 우기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 양곤을 포함한 8개 지역서 44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댐 붕괴로 인한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그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만공 스님, 만해 스님에게 독립자금 전달"

수연 스님, 만공선양회 학술대회 자료집서 증언

"만공 스님 상경할 때마다 삼청공원서 만해 스님 만나"
원담 스님 전언을 구술증언
간월암 천일기도, 독립 기원



만공 스님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구술증언이 나왔다. 오랜 도반이던 만해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견성암에 주석 중인 원로 비구니 수연 스님〈사진〉은 9월 8일 경허 · 만공 선양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故 원담 스님(前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에게 전해들은 만공 · 만해 스님의 일화를 증언했다.

수연 스님이 원담 스님을 만난 것은 1942년 8월 간월암의 천일 기도 동참 스님들의 차 시중을 들어주는 시봉으로 차출됐을 때이다. 수연 스님과 친해진 원담 스님은 하루는 "만공 노스님이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라며 한양(현재 서울)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전했다.

원담 스님은 "총독부 회의에 참석했던 날도, 선학원 고승 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밤에는 삼청공원의 은밀한 장소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만났다"면서 "두 분이 나눈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독립자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은 똑똑히 봤다"고 술회하고 말조심을 당부하기도했다.

수연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이 벌렁거려 한동안 진정을 할 수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공 스님이 일본 순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을 골라 1000일 기도를 입재한 것은 모두 독립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만공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도 스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수연 스님은 "(만공 스님께서)3년을 하루같이 간절하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우리 절 근처에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고장의 자랑인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법문을 내릴 때 나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경청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은 간월암의 1000일 기도를 회향한 3일 후였다"면서 "해방의 그 날, 동참 제자들은 절 마당에 태극기를 들고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는 이때 우리 스님의 원력이 대단해 독립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허 · 만공 선양회는 9월 8일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2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중일 불교계, 삼국 유대 다진다

10월 11~13일 중국서 우호교류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저장성 영파 설보사(雪竇寺)에서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동북아 불교교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중일대회에서는 특히 12일 우호의 상징인 한중일 황금유대 기념비가 착공된다.

이번 한중일불교우호대회에는 한국측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다. 12일 퍼시픽 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열리며 법회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이 세계평화기원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천동선사에서 서울 조계사 다도팀을 비롯한 3국 다도팀이 다도시연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최초로 진행한다. 이들 다도대표팀은 각 30분간 자국불교의 고유한 다도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공식일정으로 칠탑사와 아육왕사 등을 순례한다. 14일 한국불교대표단은 비공식으로 보타낙가사 순례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軍인성 프로그램 현장 5면
리더에게 청하다 – 주호영 20대 국회 정각회장 14 · 15면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중국 또는 남방국가의
수입수행법이 아닌
한국에서 첫 출발한 독창적인 .....



깨달음 수행법
enlightenment buddhist performances

* 수행을 하게되면 ?
1. 1~2단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다
2. 얼굴이 맑고 밝아지며 젊어짐을 스스로 확인 한다
3. 사대가 강건하고 건강해져 감을 스스로 확인 한다
4. 자신의 업(業)을 관하고 인욕하게 되고 무의자재로 나아가며 삶에 활기찬 용기가 생긴다
5. 점점 평온해지며 깨달음 세계로의 보리심이 생긴다
6. 전문 수행자는 깨달음 경전과 깨달음 선(禪)수행으로 불가사의한 마니주를 체득 한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

“김영란법, 불교계도 확실히 알아두자”

법령 시행 앞두고 불기협 등 교계 설명회 잇달아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불교계 단체들이 청렴한 교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잇달아 마련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9월 26일 오후 4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김영란법 관련 좌담회를 연다. 좌담회는 전승진 변호사(법무법인 나라)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언론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기협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취재환경을 이해하고,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한 좌담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기협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8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취재지원 명목으로 이뤄져온 일부 관행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며 “어떤 청탁도, 사적 이익을 위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9월 5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서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직원예불 후 진행된 설명회서 이진영 불교방송 법무감사팀장은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부정부패 규제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회장 이재우)도 같은 날 선학원 회의실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를 초청해 관련 특강을 열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南北 경계서 평화를 외치다 한국전쟁의 뼈아픈 상처이자 민족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늘 긴장감 가득한 이곳에 남북평화를 발원할 전법도량의 대들보가 올라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6일 JSA안보견학관 앞 법당부지서 ‘무량수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연내 법당을 완공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군위령비를 세워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5만 조선 하청노동자, 우리가 지킨다”

조선업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 9월 6일 출범

조선업 대량해고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 단체들로 구성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9월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00여 개 단체 협의체다. 이날 시민사회대책위는 ‘소리 없는 약탈, 소리 없는 살인을 멈추라!’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소 대량해고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대책위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당과 수당을 깎고, 상여금을 빼앗아 월급을 반토막 내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선소 뱃고동 소리가 소리 없는 죽음이 아닌, 노동자를 살리는 나팔이 되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만공의 ‘喝’, 조선 독립 위한 ‘언어폭탄’

경허 · 만공선양회, 8일 만공선사 학술대회

“폭탄 투척 · 저격 · 투옥 · 고문과 같은 형이하학적, 육체적 항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서훈 인정 기준은 이제 형이상학적, 정신적 차원의 항일 독립운동을 발굴 · 선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만공 스님의 항일은 선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이고 수준 높은 독립운동으로 국가 차원의 서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윤 前 중앙일보 대기자는 9월 8일 경허 · 만공선양회가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개최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에서 만공 스님의 선사상과 항일 정신에 대해 조명했다.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는 화두인 ‘무(無)’자와 ‘만법귀일(萬法歸一)’을 주목하며, 스님의 견성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의 선 사상은 돈오의 남종선의 선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 때문에 남종선의 선지가 곧 만공의 선사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前 대기자는 1937년 총독부 회의실에서 미나미 총독 주제로 열었던 조선불교 진흥회의에서 만공 스님이 미나미 총독에게 “본연이 청청하거늘…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흉계는 마땅히 거둬야 한다”고 일갈한 사자후를 주목했다.

이 前 대기자는 선가에서 행해지는 ‘할(喝)’을 세속적 의미로는 일종의 ‘언어폭탄’으로 해석됨을 전제하고 “만공의 미나미 총독을 향한 ‘할’은 소극적으로 꾸짖음과 비판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흉악한 식민통치를 폭살하고 조선인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결사 항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만공은 이미 생사 분별을 넘어선 해탈자였기에 총독의 정신을 폭살하는 의거 후의 사형이나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생사일여의 진여를 체득한 만공에게 육체적인 형벌은 허공을 지나는 그림자였다”며 “만공의 항일 독립정신은 실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선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도(至道)의 현현이었다. 어떤 독립운동보다 높은 차원의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만공 스님의 모습. 그가 미니미 총독에게 행한 할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조선독립을 위한 항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나미 일제 총독의 회유 맞선
만공의 일갈, 고차원 독립운동
禪 바탕으로 실존 독자성 강조
“정신적 항일도 서훈 인정해야”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이 보여준 정신적인 차원의 항일독립운동을 재평가하고 독립운동가 서훈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공 스님의 정신적 항일 운동이 역사 속에 소리 없이 묻힌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높은 차원의 독립운동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거듭 국가적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일할(一喝)’로 일제의 정신을 폭살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외친 그의 항일운동 서훈 인정은 충분하다. 또한 만공 스님의 할은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떠받치는 선철학과 동양철학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시명 순국선열 유족회장, 이덕진 문성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 이동언 홍암나철선생선양회 연구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 스님, 운상선원 주지 혜월 스님, 이정은 3 · 1운동 기념사업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論講정신 살린 ‘학인 토론 배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9월 28일 ‘1회 학인토론대회’ 개최

불교의 논강 정신을 강화하고 불교 토론문화 진흥을 위한 학인 토론 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회 조계종 학인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대회는 승가의 전통적인 논강을 강화하고 학인들의 사고력과 발표력, 토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종단 차원의 학인 토론대회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대회는 오전 1차 토론(예선)과 2차 토론(결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 주제는 종단 필수교육과정 중 하나인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내용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불교를 펼치는데 있어, ‘선불교’와 ‘초기불교’ 중 어느 가르침이 보다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가’이다.

결선은 사회적인 의제로 ‘2018년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존엄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 진행 방식은 예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선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가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현재 12개 승가대학을 비롯해 기본선원, 동국대(서울 · 경주), 중앙승가대에서 2인 1조로 24개 팀이 출전한다.

9월 6일 조 추첨 · OT 등 진행
24개 팀 참가해 토너먼트로
“불교 토론문화 성숙에 기여”

시상은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 10팀과 예선에만 참여한 팀에게는 원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대회 설명회 및 조 편성’을 진행했다. 불국사와 운문사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조 배정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조(동국대 경주 2 · 청암사) △2조(중앙승가대 1 · 해인사 1) △3조(동학사 · 통도사) △4조(봉녕사 1 · 범어사 1) △5조(기본선원 2 · 미정) △6조(봉녕사 2 · 동화사 1) △7조(해인사 2 · 동국대 서울 1) △8조(중앙승가대 2 · 기본선원 1) △9조(동화사 2 · 쌍계사) △10조(범어사 2 · 동국대 경주 1) △11조(송광사 · 동국대 서울 2) 등이 조 배정을 받았다.

교육원 측은 대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팀별로 이름을 받아 소속 승가대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경연보다는 토론 문화를 성숙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를 통해 학인들의 사고력과 발표력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전부지 개발, 문화재 영향평가부터”

한전부지환수위(위원장 지현)가 9월 8일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문화재 영향평가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전부지환수위는 9월 8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105층 대규모 건설공사와 영동대로 개발로 인해 천년고찰 봉은사의 수행환경과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문화재 영향평가를 비롯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한전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그룹 사옥 건축사업을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9월 2일 서울시청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 신사옥과 전시장, 호텔 등 총 5개 건물을 짓는 개발계획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삼보종 창종 25주년 기념대법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여래의 지혜와 광명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불교미래를 위하여!
종조이신 서산대사의 정신을 받들어 선학.교학. 율학 삼학을 수행하고 불국토 건설하는날까지
불법포교 정신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고져 삼보종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게되어 제방에 고합니다.

초대종정 멸공 대종사 **법 주** 정각 **원로원장** 금산 **부종정** 회천

원 로 위 원 정공. 법천. 청암. 혜공. 득봉. 오연
봉행위원장 법장 부 위 원 장 법등. 법경
봉행위원 종회의원 법융. 법성. 법공. 해봉. 홍인. 법등. 법륜. 덕암. 수산. 해원. 불광. 용현. 대산. 지원. 법인. 평산. 법전. 도오. 지일
집행위원장 평산 부 위 원 장 도오. 도찰 준 비 단 장 지일 집 행 위 원 각 부장, 국장 (전,간부일동)

사부대중 종도일동

■ 내 용 : 1부, 11시 기념법회 / 2부, 12시 경로위로잔치
■ 일 시 : 2016년 9월 29일 (목) 11:00 ~ 14:00 까지
■ 장 소 : 김해 내동 휴앤락몰 라페스타부페 6층 (☎ 055-320-9880)
■ 알 림 : 총무원에 명단 미리예약 되어야 입장할 수 있음를 알립니다.
■ 참 조 : 화환일체 사양하며 쌀보시로 대신합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 4 ■ 예약처 : 055)338-0089

■ 주 최 : 대한불교삼보종 중흥회의 ■ 주 관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협 찬 : WBB 월드불교 연합방송

승려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변경신청 공고

(사)삼보종 창종 25주년을 맞이하여 통합창종 1991년 등록이후 현재까지 본 종단산하에 등록된 930개 사암의 재정비를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변경신청으로 종무행정에 협조와 사암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재적 및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하면 종권회생 되오니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년 9월 19일 ~ 12월 30일까지
■ 구비서류 : 분한신고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1매
여권사진 1매
■ 접 수 처 : 총무원 055-338-0089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 4)
■ 종권해지조치 : 분한신고기간 이후부터 국세청과 국가기관에 등록사항 취소 및 말소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

자비로 일군 보리가람대학, 꽃을 피우다

(재)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학교 개교

2013년 9월 기공 후 결실
총 43억4400만원 기금 모여
4만평에 6개 교실 등 갖춰
9월 말부터 60명 학생 수업
"탄자니아 희망의 빛 되길"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에서 스님들과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은 불자들이 모연한 43억여 원의 기금이 투입됐다.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의 숙원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5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감보니 무와송가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2013년 9월 첫 삽을 뜬 후 3년 만의 결실이자,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지에 펼친 교육 불사다.

특히 보리가람대학이 기공된 후부터 준공까지 전국 사찰서 스님들 및 신도들의 후원이 줄이어 총 43억4400만원의 기금을 마련(8월 30일 기준),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개교를 성사시켰단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지서 송금영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 올레 나샤 탄자니아 농림부 차관, 폴 마콘다 다르에스살람 주지사 등이 함께해 보리가람대학의 개교를 축하했다.

이사장 자승 스님은 "'보리'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이다. 즉 참된 깨달음,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이란 의미"라며 "이러한 '보리가람'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희망을 한껏 만들어 가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민들에게 밝은 날을 열어줄 것"이라 격려했다.

올레 나샤 농림부 차관은 "대한민국 조계종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학교를 세워줘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농업 전문 인재 육성이 절실한 탄자니아서 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전문학교를 세워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송금영 대사는 "보리가람대학이 들어섬으로써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들어왔다"며 "보리가람이 탄자니아에 새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곳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이날 보리가람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비나눔도 펼쳐졌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이 1만 달러, 종책모임 화엄회가 6,000달러, 법화회가 5,000달러, 영축문화재단이 5,000달러를 전달해 총 2만6000달러(한화 약 2,876만원) 기금이 모연됐다.

한편 보리가람대학은 총 4만여 평 부지에 교실 6개와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학교정원 등을 보유한다. 특히 전교생 기숙생활을 위한 남녀 기숙사 각 1동과 교사 관사를 비롯해 대규모 실습공간으로 농업실습장과 가축실습장을 갖췄다.

탄자니아의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60명 학생이 본격 수업에 들어가며, 3년 간 원예 등 교육을 받으며 전문 학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입학비와 수업료는 전액 무료다.

이와 관련 아름다운동행 측은 "'전교생 기숙사 및 장학금 전액 지원'이란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원예 판매 및 수출을 통한 수익을 재정에 충당할 예정"이라며 "현재 아름다운동행이 전반적인 재정 및 운영을 맡고 있지만 추후 상황을 고려해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종립대학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오대산 생명문화 월정사서 느껴요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암자와 성보박물관, 한강시원지체험관 일대에서 '오대만월 세상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10월 5일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열리는 전국불교합창제에 이어 시작되는 제13회 오대산문화축전은 생명 · 명상 · 치유의 땅인 오대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오대산문화축전이 한국불교문화의 시원지인 오대(五臺)의 역사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과거를 모티브로 했다면 올해는 생태와 환경, 과학과 예술, 물질과 정신 등의 접목이 주제다. 축전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보는 '생명과 치유를 위한 2016 월정사국제컨퍼런스'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뇌 과학과 명상'에 관련된 강연과 '장동수 작가 특별전' 등이 진행된다. 또 산사음악회는 총 네 번에 걸쳐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월정사, 상원사, 영감사에서 열린다. 특히 세 번째 음악회는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소외받는 계층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청소년 문학행사로는 '작가와 함께 걷는 천년숲길'이 '오대산의 책 읽는 밤'과 연계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관내 초중고 및 스노우 오케스트라단의 공연과 남대지장암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기획 인형극 '다람쥐제사'가 공연된다.

개막일 저녁에는 한 해의 무사안녕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였던 월정사탑돌이가 봉행되며, 13일 목요일에는 우통수 들차회를 통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서대수정암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축전 마지막 날에는 평창군지역민 노래자랑이 월정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문화축전에서 뜨거웠던 여름 내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033)332-691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상품 대상 에코보틀 '풍경소리'

이정현 · 이현익 씨, 풍경과 차문화 접목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이정현 · 이현익 씨의 '풍경소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작인 '풍경소리'는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친환경물병이다. 사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모티브로 예부터 내려오던 불교의 차문화 확산을 기원하며 현대생활과 접목했다는 평을 받았다. 친환경 소재 실리콘으로 제작된 풍경모양의 차 거름망과 둥그스름한 물병이 전각에 매달린 풍경을 연상케 한다.



대상에 선정된 이정현 · 이현익 씨의 '풍경소리'.

아울러 우수상을 수상한 목욕용품세트 '담도(淡道)'는 공모전 최초 외국인 수상작이다. 벨기에인 배예룬 씨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자연을 생각하고, 소박한 식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사찰음식 정신에서 영감을 얻었다. 문화사업단 측은 "휴대용기는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여행 등 다양한 일상생활서 일회용 물품 낭비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서울시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상,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 등 특별상 4작품과 장려상 3작품, 특성 6작품, 입선 20작품 등 총 36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9월 28일~10월 7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10월 8~22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적 건축가들, '禪' 건축을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10일 국제 선 건축 세미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禪)사상에 입각한 건축 개념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선원수좌문화복지회는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 선 건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토마스 한라한 뉴욕 프랫대학 건축학과 교수, 영국의 건축가 알란 파워, 일본의 미나미 야스히로 고쿠시칸 대학 건축학과 교수, 스즈키 토모히로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한국의 김개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가 주요 발제자로 참여했다.

세미나는 문경에 건립되는 국제선센터의 설계를 위한 것으로 발제자들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선 건축 언어를 정립하고 이 같은 선 건축 언어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대중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발제에서 한라한 교수는 선건축의 창조 의미와 자연광과 명상, 자연과 조화를 위한 재료 선정 등을 설명했다. 알란 파워는 "한국의 선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물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공간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연과의 융합과 이상적 정원을 만들기 위한 자연의 재창조 등을 논의했다.

韓 · 美 · 日 등 건축가 5명 발제
각각 禪 건축 개념 설명 진행
문경선센터 설계자 지명 예정

일본의 미나미 야스히로 교수는 종교적 공간이 '정신과 대면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기도와 명상, 대면의 건축이 무엇인지를 조명했다.

오래 전부터 불교 사상을 기반한 건축을 해오고 있는 김개천 교수는 "선 건축은 예술 안에서 무한한 정신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어떤 의도로부터 자유롭고 삶과 피안의 모습도 함께 획득한 숭고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 의정 스님은 기조 발제를 통해 "선의 정신을 명상마을의 건축물과 조경 및 전체 환경에 접목 · 융합시키는 것이 곧 선 건축"이라며 "세계명상마을은 수행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수행 분위기에 젖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다. 이는 낯선 시도지만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문경국제선센터를 한국불교계에서는 최초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복지회 측은 "세미나 결과에 따라 향후 문경국제선센터의 조성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초청한 선 건축 전문가들을 지명해 국제현상설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JINGAK WFB 7028 SEOUL KOREA

2016 September 26th – 30th

제28차 WFB 서울총회
The 28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9월 26일 - 9월 30일
www.28wfb.org

주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of Buddhists)

제 19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The 19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제10차 세계불교대학 회의(WBU)
The 10th Meeting of the World Buddhist University



개회식 Opening Ceremony
27일 (화)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

학술포럼 Academic Forum
주제: 현세정화와 밀엄정토
29일 (목) 오전 9시

폐회식 Closing Ceremony
29일 (목) 오전 11시

주최 대한불교진각종, WFB 세계본부
주관 WFB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교방송 / 위덕대학교 / 밀교신문

일 주 문



추석맞이 자비나눔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9월 7일 홍은2동 지역어르신과 소외계층에 쌀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재가불자 가을산철안거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불선원서 재가불자 가을산철안거를 실시한다.



제9회 선운문화제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9월 24일 경내 특설행사장 및 사찰 일원서 '제9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수미정사 수계산림대법회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9월 18일 오전 9시 30분 대원보전서 '제2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언불련 하반기 성지순례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9월 3일 충주 석종사와 세계미륵사서 '2016년 하반기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빈곤국가 도우며 삶 회향해야죠"

지구촌공생회에 1억 원 약정한 전주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



공양주도 없이 평생 전법
근검절약하며 모은 기금
교육불사에 나눔 회향

"세속 나이 70세를 훌쩍 넘기고 삶의 회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기억이 많지 않아 이번에는 변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우리 지역 어르신인 월주 큰스님이 설립한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납 75세, 법랍 53세. 절에 공양주도 없이 평생 전법활동을 펼쳐온 노 비구니스님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1억 원을 약정해 화제다. 바로 전주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지난 8월 말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약정했다.

삼명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법우사는 전주시 남노송동 기린봉 기슭의 작은 사찰이다. 절에 가려면 도로에서 비탈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야 한다. 겨우 사람 하나 지나다닐만한 비탈길만이 유일한 출입구다.

삼명 스님이 이곳에 부임한 것은 40년 전이다. 당시 법우사 법당은 거의 허물어져 비가 오는 날이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 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해 폐가와 다름없었다. 스님은 진입로도 없어 밭길을 돌아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던 도량을 정비하고, 절 이름을 법우사로 변경해 조계종단에 등록했다.

삼명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신도들과 함께 불사를 일으켜 12년만인 1988년 23평의 대웅전과 76평의 요사채를 건립하면서 비로소 도량의 면모를 갖췄다.

"더 이상 불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는 법당과 신도들이 머물 요사채 1동이면 족합니다. 신도들이 마음 편하게 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스님은 공양주도 없이 생활하면서도 지역 포교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적극 동참해 왔다. 전주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회를 지원하는 일과 군장병들을 위한 후원은 신도들도 잘 모를 정도로 암암리에 해왔다. 전북경찰청 경승들의 모임인 청불회에서 활동한 것도 10년이 넘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금산사 보리수 마을 개관에는 식기 일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스님이 이렇게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우사 신도들의 도움이 컸다. 신도들도 스님이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본받고 스님이 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도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스님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필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고마운 신도들을 위해 스님은 매월 정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좌를 열고 있다. 튼튼한 신행의 원동력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제 여생을 신도들과 함께 빈곤국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빈곤국가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산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식

불국사 무설전서, 사부대중 500명 동참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5일 경내 무설전서 봉행했다.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서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이니, 본래 근본자리서 생과 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강정규 대구사원聯 신도회장 취임

"불교 사회공동선 목표 위해 최선"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선지) 신도회는 9월 3일 대구 그랜드호텔서 제5대 강정규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강정규 신임회장은 "초심을 지향하며 지혜의 문을 향해 살아가는 도반들과 함께 일심 정진으로 단결하고, 불교의 사회공동선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주 노인복지회, 경로위안잔치

리윈호텔서 독거어르신 100명 초청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 연꽃마을 자비원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 전주 리윈호텔 백제홀서 독거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정인 스님은 "생활속의 봉사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음식·슬로푸드 교류 나서

문화사업단, 국제슬로푸드와 MOU

지난 2013년부터 각종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과 발우공양 등을 알려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제슬로푸드와 상호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9월 6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사찰음식·불교문화관광콘텐츠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상호교류와 함께 슬로푸드 관련 국내외 행사, 캠페인, 학술교류 등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단장 성효 스님은 "180여개 국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슬로푸드운동에 한국불교가 함께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서구문화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그 안에 동양적인 가치를 심어 인류보존에 기여하는 운동이 되고, 국제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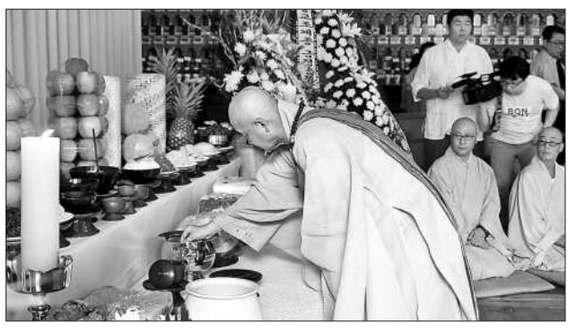
"그곳서도 설법하고 계신지요…"

조계사·무진장연구원, 무진장 대종사 3주기 다례

45년 간 조계사에 주석하며 대중을 위한 설법 포교에 매진했던 무진장 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후학들이 다시 한 번 스님의 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은 9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무진장 대종사 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무진장연구원 이사장 법산 스님은 "무진장 큰스님은 40년을 넘게 이 도량(조계사)을 지키며 조계사와 조계종의 얼굴이 되어 왔다. 그 법음이 조계사 법당 서까래마다 구석구석 배어 있다"며 "만년이 지나더라도 그 무소유 정신, 불굴의 정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한 숭고한 정신은 변함없을 것"이라 무진장 대종사를 기렸다. 박아름 기자





육지장사, 다문화 힐링 템플스테이

日·中·比 등 각국 청소년 30여 명 참여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9월 3~4일 경내서 제2회 다문화가족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일환으로 '힐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일본·중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각국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는 △정지윤 교수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과 교육방향' 특강 △모둠별 토론 △힐링게임 △야외명상 △108염주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은 "사찰에서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지만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는 비교적 부족하다고 느껴 지난해부터 다문화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동량(棟梁)이 될 아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행복 동력’ 위한 마음 속 배터리… 軍 사기충전 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군인 인성 프로그램 현장


육신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는 행복충전소 ‘입력하기’. 안대를 쓴 군인과 그를 안내하는 동료가 서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혜벽 스님이 행복충전소 참가자들에게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은 매달 첫 수요일 오후 부산에 있는 제6339부대를 찾는다. 군인들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행복 충전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행복충전소’는 대행 스님 법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마음선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꾼 것이다. 현재 제6339부대 간부와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선원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군인의 덕목인 ‘충(忠)’에 그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충성의 충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으로 이뤄져 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역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게 행복을 위한 길임을 알려주고자 했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3번째 만남이 이어진 9월 7일, 부대 내에 있는 법당 대자비전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총 10여 명의 군인들이 법당에 삼삼오오 자리 잡았다. 한창 바쁠 업무 시간, 이들은 발걸음을 옮겨 법당을 방문한 이유를 “행복해지는 법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다.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방문한 이들에게 부산 한마음선원 군포교 담당 혜벽 스님은 먼저 마음의 근본 원리를 설명했다. 스님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신과 잘 노는 것’에 있다고 했다. 스님은 ‘자신과 잘 놀기 위한 방법’이 마음의 중심, 참된 나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관찰하며 실생활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마음 관찰하기’ ‘중심 찾기’ 그리고 ‘입력하기’ 순으로 진행됐다.

마음 관찰하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군인들에게 몸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엄지손가락을 잇고 편안한 자세로 앉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천천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몸과 정신에 명령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제3의 눈인 관찰자가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어 붉은색, 주황색, 푸른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컵을 앞에 두고 마음 관찰 후 자신의 마음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컵을 선택하도록 했다. 군인들은 스트레스, 가족, 건강, 업무 등 다양한 답을 설명하는 컵을 집어 들었다.

군 간부 · 상근예비역 위해
선원 인성교육 쉽게 바꿔
매월 첫 수요일 군법당서
‘마음 중심 찾는 법’ 조언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한 이들에게 혜벽 스님은 “허공에 그 컵을 뒤집고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벽 스님은 “이 모든 것은 허공과 같이 공한 자리에서 나는 것이며 비워버리는 것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마음 상태를 확인한 후 비우게 되면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심찾기’는 참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혜벽 스님은 “사람의 구성은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며 “정신은 ‘마음’과 ‘참나’로 나눠져 있고 참나를 찾아 몸과 조화를 이뤄 나갈 때 모든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참된 자아가 가진 힘과 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미니 등(燈)’ 그리기를 진행하고, 참된 자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인공, 바다, 선장, 보디가드 등 여러 단어를 제시했다. 군인들은 미니 등에 그린 자신의 중심을 파트너에게 설명했고, 곧 이어 법당 옆에 위치한 테니스장에서 ‘입력하기’ 시간을 진행했다.

두 명의 파트너를 한 조로 묶어 한 명은 눈을 감고 눈을 뜬 다른 한 명이 파트너를 안내했다. 육신과 참된 자신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기 위한 체험이었다. 눈을 감고 걸어가던 한 군인은 “눈을 감고 걸을 때 장애물이 없으니 내가 어디쯤 왔는지 예측할 수 없어 오히려 혼란스러웠다”며 “한편으론 삶의 장애도 내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혜벽 스님은 또 한 달 동안 스스로 적용할 ‘셀프콤비 프로젝트’로 △나에게 선물하기 △혼자 여행하기 △하루 목표 세우기 △하루를 되돌아보며 편지 쓰기 △매일 감사한 것 적기 △하루 일과를 친구에게 말하듯 음성 녹음하기 등을 제안했다. 참여한 군인들은 행복 에너지로 자신을 매일 충전할 것을 약속하며 “프로젝트는 일상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만들어 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행복충전소에 참여한 군인들은 짧은 시간동안 휴식을 얻었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명은(37) 중사는 “평상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충석(27) 하사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 시간을 통해 휴식을 얻고 밝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현주(30) 중사는 “군 생활은 비슷한 일상이 반복돼 단조로울 수 있다. 주어진 프로젝트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마음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충전소는 제6339부대 이정환 연대장의 제안을 부산 한마음선원이 받아들여 탄생했다. 이정환 연대장은 부대 내 뿐 아니라 일상생활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찾고 있었고, 당시 부대를 방문해 법회를 열고 장병들에게 공양 올리던 선원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결핍도 성장의 밑거름 돼요”

부산 한마음선원 군포교 담당 혜벽 스님



“행복 충전소는 인성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위해선 우선 스스로 잘 놀 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코드만 꽂으면 충전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마음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통해 마음을 조절하고 밝아지면 곧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부산 한마음선원 군포교 담당 혜벽 스님〈사진〉은 인성 교육의 첫 출발은 에너지를 충전할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혜벽 스님은 군포교 현장에 어울리는 단어 충(忠)을 풀어 설명하고 ‘마음 중심 바로 잡기’로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혜벽 스님은 “군부대라는 현장은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함이 전제되는 곳이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결핍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핍은 곧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면서 “결핍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군인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연말마다 진행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늘 푸른 콘서트’ 계획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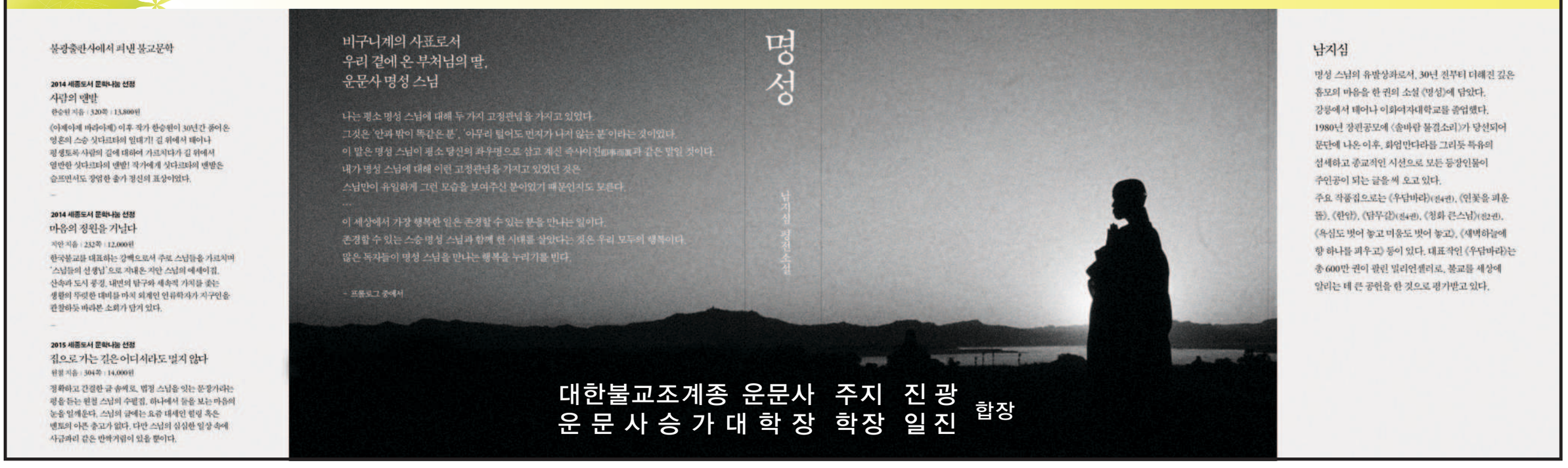
스님은 “현재 부산 한마음선원에는 군 장병들을 위한 후원자가 100명이 넘는다. 후원자들을 모시고 군인들이 직접 장기자랑과 인성교육 성장일기 발표 등으로 무대를 꾸미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법계 명성 회주스님 출가 65주년 기념 평전소설 봉정식

법계 명성 회주스님 출가 65주년 기념 평전소설 봉정식을 동문회와 함께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60(2016)년 9월 20일, 오후 2시 (음. 8월 20일)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문 의 :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신행·포교 소식

포교사 신행 다질 팔재계법회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 9월 24~25일 법주사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포교사들의 지계 실천과 신행 점검을 위한 법석이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24~25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14회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2003년부터 매년 포교사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온 팔재계법회는 올해 최다 인원인 3500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법회는 첫날 오후 5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저녁예불 △입재식 △제10기 전문포교사 및 제21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연수특강 △팔관재계 수계식이 진행된다. 이어 △독경 및 철야정진 촛불행진 △새벽예불 △참선실수 △회향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팔재계법회 대증명은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전계대화상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갈마사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교수아사리는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 맡는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재가자로서 포교사들이 육재일마다 계를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지계를 실천하며 포교사의 자세를 다지고자 한다"며 "출가자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 점차 늘어나는 포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서 사진기술 배워보자

서울 봉은사, 사진교실 신설… 수강생 모집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신도 및 일반인들을 위한 사진교실(기초반)을 신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교실은 9월 21일~11월 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봉은사 수련원서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사진편집법 △인화과정 △출사 등 이론 및 실급교육을 병행한다.

봉은사 측은 "평소 사진촬영과 카메라에 관심 있었으나 쉽게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카메라 사용법서부터 사진편집, 인화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특히 향후엔 중급반 · 고급반까지 전문 강좌를 개설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참여 접수는 9월 20일까지 봉은사 접수처 새신도연등(02-3218-74900)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수동기능이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료 10만원.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02)3218-483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영어로 나누는 '불교, 지금 그리고 여기'

Street Zen시리즈 입문과정 9월 20일 개강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서 겪는 문제에 적용해 마음챙김 ·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수행인 스트리트 젠(Street Zen) 입문과정이 열린다.

강의는 9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필동 감이당 베어하우스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중앙승가대 포교영어 · 불교영어 등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존 뷰드리(John Beaudry) 교수가 맡는다. 강의는 스트리트 젠 입문과정으로 '불교,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주제 아래 영어로 진행된다.

강좌는 △모든 것은 변한다(개요) △원숭이 마음과 헤어지는 연습(일상에서의 마음챙김) △내 마음의 독을 찾아(삼독과 성격 유형) △딱 걸렸어(존재의 참모습, 그 세 가지 특성) △고통의 바다서 헤엄쳐 나오는 법(네 가지 고귀한 진리) △인드라망 바로보기(중도-연기와 공)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이치(카르마) △모두가 고통스럽다, 혼자가 아니다(자비) 순으로 이어진다.

010-9286-3399

윤호섭 기자

"올해의 교리왕은 바로 '나란다'"

가을하늘 아래 펼쳐진 제8회 나란다축제
동국대 일원 3000여 대중 佛法 되새겨


동국대 서울캠퍼스 체육관서 열린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며 즐거워하고 있다.

긴장감이 감도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체육관. 하얀 보드판을 앞에 두고 앉은 300여 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사회자의 말에 집중했다.

"두 손을 모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합쳐진 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불자끼리 인사할 때 나누는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써내려갔다. 정답 '합장'이 발표되자 문제를 맞힌 아이들은 힘차게 보드판을 흔들며 환호했다.

폭염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성큼 다가온 9월의 첫 주말. 동국대서 불교교리축제인 '제8회 나란다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에는 전국 30개 사찰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첫 문제를 손쉽게 맞힌 아이들은 그 다음 문제에서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묻는 문제. 정답은 삼귀의였지만 많은 아이들이 불 · 법 · 승을 적으면서 80% 가까이 탈락했다.

이어 청법가가 정답인 문제서 '마하반야'를 적어 탈락한 조일상(초3) 군은 "알고 있는 건데 까먹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많이 하는 말을 적었다"고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최 측은 행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되자 곧장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송편'을 묻는 문제 덕분에 탈락자 대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20여 문제를 쉴 새 없이 풀어내고 16명만이 남았다. 그 중에서 유독 키가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백승원 군이 홀로 고학년들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실력발휘를 하고 있었다. "1등 해서 상금을 받으면 보시하고 싶다"는 백 군의 말에 관중은 우레와 같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다음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탈락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몇 문제를 더 풀고 최후의 2인이 남았다. 서울 화계사 박준선(초6) 군과 서울 약사사 노승현(초5) 군.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 호명보살일 때 있었던 곳'을 묻는 문제에 노 군이 '도솔천'을 적어 최종 우승과 더불어 상금 2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노 군은 "상금은 부모님께 드릴 것이다. 또 절에서 1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지 스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 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100여 명이 참가한 일반부 경기서는 조계사불교대학 소속 이재림 씨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우리말 독송대회'서는 동대부속 영석고교의 '라훌라' 팀이 우승했다. 예불문을 주제로 한 독송대회는 시간관계상 각 팀마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독송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불 · 경전의 한글화를 보급하는 조계종단의 기치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만해광장서 진행된 체험마당은 만들기 · 상담 · 사진찍기 · 전통의상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회향마당 이후 동대문 특설무대서 열린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춤실력을 뽐내 흥을 돋웠다.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8회 나란다축제는 고령화가 깊어지는 불교계에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열린 법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중등부 · 고등부 · 군장병 부문 평균 응시율이 80%(총 3449명)를 웃돌아 역대 최다 기록을 냈다.

윤승헌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과장은 "나란다축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매년 새로운 시도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불자들도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 제2회 은정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서는 국립전통예술고 2학년 이세영 학생(성악)이 종합대상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자 마음다스림의 비법, 〈서장〉 안에

불교인재원, 9월 26일 〈서장〉 강좌 개최

금나라의 외침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중국 남송시대, 간화선 주창자 대혜 종고 스님은 국가 요직의 인사들과 편지 문답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할 것을 안내한다. 그 문답이 바로 〈서장〉이다.

이런 대혜 스님의 〈서장〉을 우리말로 쉽게 배우고 익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총 19회에 걸쳐 〈서장〉 강좌를 개설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사진〉은 9월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혜 스님 당시와 같이 분단과 외세의 압력, 그리고 국론 분열에 빠져 있다"며 "대혜 스님의 서장 공부를 통해 재가자들이 화두참선으로 정진력과 용기를 내, 각박한 현실을 개척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좌에서는 고우 스님이 감수한 전재강 역 〈서장〉을 교재로 신규탁 연세대 교수,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박사, 불광연구원 범준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희승 성철연구원 연구실장, 오용석 연세대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사 면면을 보면 간화선 전공자와 실참수행자들이 섞여 있다.

연세대 신규탁 교수는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에서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선학회 학회장이다. 변희욱 박사는 서울대에서 최초로 간화선 박사 학위를 받은 간화선 전공자이며 오용석 박사도 중국 남경대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를 취득하고 연세대 연구원으로 있다. 범준 스님은 고려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불광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박희승 연구실장은 불교인재원과 동국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생활참선과 마음명상에 관한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엄상호 이사장은 "재가자 교육과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재가자들이 쉽게 불교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불교사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대혜 스님"이라며 "대혜 스님은 남송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 행주좌와 화두참선과 연기실상을 본 견지에서 정치를 펼 것을 강조했다. 이 시대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강좌 후에는 10월 15~16일 1박 2일간 실참수련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와 금봉암을 참배하고, 법문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교인재원은 30대 미만 청년들의 경우 무료로 강좌를 진행한다. 30대 이상은 12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40명까지다. (02)1661-110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계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초/청/법/회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게 하는
생활속의 금강경 대강좌

이 시대의 희유한 선지식이며
불세출의 도인으로 알려진
백성욱 박사 (1897~1981)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불행과 행복이 다르지 않고,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고, 무지 무능이 지혜 능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범부가 성자가 되는 이치를 깨치신 금강산 대(大) 도인(道人).

- 1897년 서울에서 출생
- 1910년 정릉 봉국사에서 최하응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참여.
- 1925년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박사 학위 취득
- 1928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도로 견성오도(見性悟道)
- 1945년 광복 후 건국운동에 참여.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내무부 장관직을 필두로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사장 역임
- 1953년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
- 1962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개설하여 인연있는 후학들을 지도
- 1981년 출생하신 바로 그날, 아무 말씀 없이 열반에 드심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원수 이사장은 누구인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R.O.T.C. 장교로 군복무후 엘리트 코스를 포기하고, 백성욱 박사 문중으로 4년간 출가하여 금강경 실천수행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29년간 역임
- 퇴임후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금강경 실천도량)을 설립
- 사재를 털어 법당 2채를 법인에 헌납
- 무료급식소를 설립(2004)하여 지금까지 30만명 급식 실시
- 조계종 사회복지부문 〈총무원장상〉 수상(2010)
-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1년간 〈생활속의 금강경〉 매주 특강(2015)
- 매년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 개최
- 출간서적 :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붓다가 되신 예수님』 등

법문내용

-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변화과정
- 부처님 설법의 특징 및 금강경 공부의 당위성
- 금강경 대의를 통한 신해행증
- 금강경 3분에 나타난 진리 및 실천 수행법
- 금강경 4분부터 14분까지 대의 설명
- 금강경을 통한 재앙소멸 소원성취 원리 소개
- 금강경을 통한 획기적인 인성교육 및 인재(CEO) 양성 대안 제시
- 금강경을 통한 불법 진흥 및 출가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 '금강경 교육모델로 삼으면 하버드大 능가한다'

신청안내

- 강 사 : 김원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 일 자 : 2016년 9월 5일(월) ~ 11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12강좌)
- 시 간 : 저녁 7시 ~ 8시 30분
- 장 소 :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수 강 료 : 6만원 (3개월분)
- 납부계좌 : KEB 하나은행 266-890010-35104 예금주 : (재단법인)대한불교진흥원
- 접수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 문의전화 : (02) 707-1072
- 담 당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 주최 |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천천히 讀經 때 불교 가치 올바로 이해”

〈독경〉

참불선원 강좌… 천천히 경을 읽는 즐거움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부처님은 항상 만나는 이들에게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했다. 병에 따라 약을 주듯 상대방의 능력에 맞춰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경전으로 불자들에게 전해지지만 ‘1천독’ ‘1만독’ 등 횟수에 얽매여 많이 외는 것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있다. 이미령 북칼럼니스트는 9월 6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 대강좌서 “경전을 천천히 읽을 때 메시지를 찾아내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미령 북칼럼니스트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경전관련 강좌와 칼럼집필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상(역경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여러 불교대학서 강의하면서 교계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BBS FM ‘멋진 오후 이미령입니다’ YTN FM ‘YTN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등 진행을 맡고 있다.

불교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전을 읽어보셨나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사경을 하기도 하고, 독송도 하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전을 어떤 속도로 읽는 편인가요? 누군가는 다라니를 외듯이 빠르게 읽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전 내용을 음미하기 위해 천천히 읽겠죠.

저는 오늘 초기경전을 천천히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기경전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경전을 읽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세속과 괴리감을 느껴 얻어가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경전은 내용이 쉽고, 자세하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잘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앙굿따라-니까야〉에 나오는 내용을 독송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밧티 시의 제타숲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장자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세상에는 열 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범부란 눈·귀·코·혀·몸으로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열 종류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둘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셋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넷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여섯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일곱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여덟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아홉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떠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열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압니다.

장자여, 첫 번째 범부는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다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남에게 나누어주지도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다는 비난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두 번째 범부는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다는 것,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다는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세 번째 범부는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 것이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이 칭찬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교경전
읽는 속도 불자들 천차만별
눈과 입으로 내용 음미하면
경전 메시지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범부는 한 가지로 칭찬받고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이 칭찬받는 한 가지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은 비난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다섯 번째 범부는 두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은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여섯 번째 범부는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이 칭찬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은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일곱 번째 범부는 한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은 칭찬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여덟 번째 범부는 두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두 가지 일입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이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아홉 번째 범부는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은 칭찬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떠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열 번째 범부는 네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아는 것이 칭찬받을 네 가지 일입니다.

장자여, 세상에는 이처럼 열 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이 열 종류 가운데 ‘정의롭고 비폭력적으로 재물을 구하며,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으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아는 열 번째 범부’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내용은 기원정사를 공양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부처님이 재물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물을 모아야 할까요, 모으지 말아야 할까요?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을 느낀 대로 이야기해봅시다. 또 재물을 모았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재물을 향유하는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범부의 차이점인 무엇이고, 이 열 종류 범부 가운데 당신은 몇 번째인가요?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는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짧은 경전 내용이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느끼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곧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 반복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휙휙 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무엇은 칭찬받고 무엇은 비난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구구절절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내 주변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쉽게 판단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고, 어떤 이에게 감동을 받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런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이 어떤 이유로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지 얘기하신 겁니다. 뭉뚱그려 말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불교가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져 아는 것이 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경전을 천천히 자신의 눈과 입으로 읽어가면서 경전에 쓰인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일. 이것이 불교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 사람을 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요?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9월 30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23차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머무는 곳마다 주인으로 애쓰고 계실 청암 동문 여러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차오르는 달빛이 청암의 불령동천을 떠오르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제 23차 총동문회가 어김없이 청암사에서 열리오니
선.후배 동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 짜 불기 2560(2016)년 9월 20일 (음, 8월 20일) 화요일
시 간 오후 7시
장 소 청암사 자양전
문 의 054) 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

몽골·티베트 불교 미술 'A to Z'를 만나다

무우수불교아카데미 특별강좌

몽골과 티베트의 불교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무우수불교아카데미는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불교미술원 3층에서 매주 토요일 '몽골-티베트 불교미술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김선정 몽골불교미술원 교수가 진행하며, 이론과 실기로 나눠 상세히 이뤄진다.

이론 강좌 커리큘럼으로는 △대몽골의 불교미술 △몽골 · 티베트 불상과 불교미술의 기원 △몽골 · 티베트 불교의 도상비례학 △화면분할법/ 도상비례의 단위 △불교 인체학 · 해부학 · 천문점성학과 미술 △만다라 개론 등이 이뤄진다.

실기로는 △화면분할작도법/ 부처님 호상 작도 △법의를 입은, 벗은 부처님 도상 작도 △분노존 금강지보살 △한국불교의 불상과 보살의 도상 작도 등을 배울 수 있다.

'몽골 · 티베트 불교미술 특별강좌'는 오는 9월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정원은 15명이다.

(02)720-3554

신성민 기자

MSC 프로그램 배우는 전문 연수 열린다

불교상담학회 9월 24일부터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는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격주 토요일 총 4주 8회에 걸쳐 제2차 'MSC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MSC(마음 챙김 자기 자비, Mind 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은 자기 자비의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심리치료 통합의 선구자인 하버드대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와 크리스틴 너프 박사에 의해 개발됐다.

MSC 프로그램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비 수행에 대해 관심있는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의 핵심 원리와 다양한 수행법을 익힐 수 있다.

강의는 권선아 중앙승가대 강사가 진행하며, 장소는 동국대 명진관 2층 좌선실이다. 교육비는 40만원이며, 스님은 10% 할인된다. 프로그램 이수시 불교상담전문가 실습시간 24시간 인정된다. (010)6746-5926

신성민 기자

"탈종교화 극복, 공공성 회복에 달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탈종교화' 주제 연찬회

탈종교화는 이제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종교로서는 가장 큰 위기의 조짐이기도 하다. 탈종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생구제와 구원이라는 종교의 본색(本色)을 되살리고, 자정을 통한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 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전문 학자과 종교인들이 참여해 현재 탈종교화 상황과 전망, 대안들을 내놨다.

연찬회 참석 전문가들은 탈종교화는 종교 · 교당 등 경계의 무너짐을 주요한 현상으로 꼽았다.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은 탈종교화의 주요 현상으로 세속화와 탈제도종교화를 들었다. 세속화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것이고, 탈제도종교화는 종교적 삶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종교가 공적 지위를 잃고 사적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세속화의 한 측면이며, '불교적 그리스도인', '유대인 불자' 등 다중 소속 현상은 탈제도종교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탈종교화 시대에 세속적 제도들이 종교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나서서 종교의 전문영역이었던 힐링의 산업화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고, 영성을 마케팅의 주요 범주로 활용하고 있다. 대중스타에 대한 팬덤은 청소년의 유사종교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탈종교화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 중 하나는 명상 대중화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상은 단순히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 지식인, 웰빙족 등이 공유하는 힐링의 기제다.

명상의 대중화에 대해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명상의 대중화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이 되는 것)와 함께 발생한 근대적 현상"이라며 "명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소비문화의 하나로서, 명상의 유행과 더불어 오히려 탈종교화와 종교의 사사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업주의와의 결탁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상의 대중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한국불교의 '다불교' 현상이다. 티베트, 미얀마, 태국, 일본 등의 다양한 불교 전통이 혼입되고 있고 MBSR과 같은 현대적 명상법들이 서구에서 역수입되고 있다.

명법 스님은 "다불교 상황은 다종교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불교를 약화시키고 종교를 사생활 또는 취미생활로 여기게 했다"면서 "이제 한국불교는 종교 시장에서 타종교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불교전통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이 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명법 스님


정경일 원장


김근수 소장


김진호 실장

세속화 · 脫제도종교가 주요 현상
다중 소속, 명상 산업 단적인 예
하화중생 · 구원, 종교 본질 찾아야

탈근대사회 불교, 제 역할 위해선
내부 개혁통한 공공성 회복 중요
"원장 선거, 시민 20% 참여 유도
종단 넘어 국민 전체 축제 만들자"

이어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다문화, 다종교, 다불교 상황을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상대주의를 허용할 만큼 권위주의를 청산하지도 못했다"면서 "불교를 현재적 경험 속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위치했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다시 현재 한국 상황과 접합시키는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으로 '중생구제'와 '구원'이라는 종교 본질을 되찾는 것과 공공성의 회복을 꼽았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보여준 지도부 교체, 인적 청산, 개혁의 길이 조계종 등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총무원장 선거를 사부대중 20%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나머지 20%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근수 소장은 "총무원장 선거가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면, 사람들이 조계종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일 원장은 '탈사회화'에 종교가 맞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불안을 잊게 하는 '아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경일 원장은 "이 시대에 종교가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은 종교의 위기가 아닌 민중의 위기"라며 "고통의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종교본색(宗教本色)'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법 스님은 불교 내부 개혁을 통한 공공성 회복을 역설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다. 다만, 공동체적 삶은 수행자 · 재가자가 공히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설하는 △신화공주(身和共住: 몸으로 화합함이니 같이 살라) △구화무쟁(口和無諍: 입으로 화합함이니 다투지 말라) △의화동사(意和同事:뜻으로 화합함이니 같이 일하라) △계화동수(戒和同修: 계율로 화합함이니 같이 수행하라) △견화동해(見和同解: 바른 견해로 화합함이니 함께 해탈하라) △이화동균(利和同均: 이익으로 화합함이니 균등하게 나누라) 등 여섯 가지 화합(六和)의 덕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여성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탈근대 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불교 내부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가수행자가 지향하는 공적인 정신과 초연한 삶의 자세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 파편화된 탈근대사회에 가장 뛰어난 위로이자 해방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 불교학 동향 · 이슈를 '한눈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세계의 불교학 연구〉발간

동아시아부터 인도 · 서구 등 불교학 연구 현황 · 역사 살펴



세계 각국의 불교학 연구 동향과 이슈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술서가 발간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연구소의 첫번째 학술총서인 〈세계의 불교학 연구〉를 발간했다. 이는 '세계의 불교학: 동향과 과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한 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을 담아낸 것으로 연구소 측은 "세계불교학 연구소 총서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책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주제는 한국부터 인도, 스리랑카, 독일 등의 불교학을 다룬다.

연구소 소장이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고영섭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화와 세계 불교학의 한국화 방안- 한국어와 영어 권역 불교학술 논저를 중심으로'를 통해 국내외 불교학 연구의 공유와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배경아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 · 동아시아 불교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에서 불교 문헌학을 활성화해 불교학의 연구 업적을 풍부하게 축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보훔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이민성 씨는 '독일의 불교학 연구 프로젝트 현황'을 통해 독일의 뮌헨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보훔 대학 등에서 진행 중인 불교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들 대학의 불교학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문헌학'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또한 문진건 동국대 명상심리학과 초빙교수는 '호적과 스키의 논쟁'을 소개하고 미국 선학 연구사를 되짚는다.

고영섭 소장은 "연구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세계 불교학을 깊이 연찬하고 소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교를 쉽게 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향후 권역을 한국-동아시아 불교학 연구, 인도-남아시아 불교학 연구, 유럽 불교학 연구, 미주 불교학 연구로 나눠 상호 대비와 대조 및 비교를 통해 논구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QS세계대학평가' 역대 최고 기록

국내 14위 · 세계 400위권 첫 진입… 지난해보다 93계단 상승해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6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4위, 세계 순위 441~450위에 올랐다고 9월 6일 밝혔다.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3,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을 비롯해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동국대는 학계평판과 교수당 학생비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4년 연속 순위를 끌어올렸다. 실제, 동국대는 2013년 601~650위 등급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537위에 올랐고 올해는 444위로 93계단 상승해 세계대학순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동국대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40%를 차지하는 학계평판 지표와 20%를 차지하는 교수당 학생비율에서 선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곽대경 동국대 기획처장은 "그동안 동국대의 연구역량은 세계 학계에서 다소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어 학계평판 지수가 좋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들의 연구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 웹진 등을 제작, 해외대학 및 글로벌 기업에 정기적으로 보냈다. 전략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계평판 지표는 전 세계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최고의 대학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상담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시방세계 '自性佛' 통도사에 나투다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9월 19일~10월 17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 2016년 개산대재는 '큰 절 문을 열다-시방세계 부처님 통도사 나투시다'란 주제로 개산대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 9월 19일~10월 17일 열린다.

주제 가운데 '시방세계 부처님'은 자성불(自性佛), '당신이 곧 부처님'을 의미한다. 이는 〈범망경〉의 '대중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너희는 당래에 이룰 부처요 나는 이미 이룬 부처이니'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참가대중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나무 OOO 불'이라고 개인 축번에 적고 괘불대전이 열리는 무풍한송로 거리에 건다.

괘불대전은 통도사의 특별 전시로, 한국의 산사 괘불탱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대형 실사 33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다. 33개의 숫자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을 의미하며 길을 따라 양쪽 모두 설치하면 66개의 괘불탱으로 낮과 밤, 24시간, 시방세계를 뜻한다. 괘불대전이 열리는 이 무풍한송로 거리서 괘불이운식이 열리며 참가대중들이 이운식 때 직접 꽃을 뿌리고 부처님의 나투심을 축하하는 대장관을 연출한다.

괘불대전은 영축문화축제 기간 동안 10월 1~17일 까지 만날 수 있으며 괘불이운식은 10월 8일 오전 9시 산문 주차장에서 시작해 보행로, 일주문, 괘불대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통도사는 앞으로 괘불 이운식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오전 10시 해장보각서 '통도사 개산대재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윤영해(영축불교문화연구소 자문위원), 한상길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혜일 스님(영축불교문화연구소 자문위원),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이 △개산대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자장율사와 문수사리 신앙 △이운의식의 신앙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다례제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괘불대전, 66개 괘불탱 전시
자성불 개인 축번 함께 걸어
대중 꽃 뿌리는 장관 연출
불교문화 향연 볼거리 넘쳐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개산대재의 과거 · 현재 · 미래로 나눠 진행한다.

'개산대재의 과거'는 자장율사가 1371년 전 통도사를 창건한 뜻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자장율사의 가사를 친견하고 괘불헌공 및 괘불이운, 영고재, 봉축 법요식이 열린다.



통도사가 개산대재를 맞아 9월 19일~10월 17일 영축문화축제를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자장율사 영고재 모습.

2016 통도사 개산대재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장 소	주요내용
9월 19일~10월 10일	오전 9시	도량내	오색초롱등 장엄
9월 26일~10월	오전 9시	도량내	국화 장엄
9월 29일~10월 16일	오전 9시	총림문~박물관	양산축제
10월 1일~10월 17일	오전 9시	보행로(무풍한송로)	괘불대전
10월 8일	오전 9시	산문 주차장→보행로(무풍한송로)→일주문→괘불대	괘불이운
	오전 10시30분	괘불대	괘불헌공
	14시	부도전	부도 헌다례
	15시	부도전	들차 시음회
10월 9일	오전 9시	해장보각	영고재
	오전 10시30분	설법전	봉축법요식
	오전 11시	설선당 앞 마당	만발공양
	13시	설선당 앞 마당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개산대재의 현재'는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부도 헌다례, 국화장엄, 만발공양, 오방색 초롱등 오색장엄을 만날 수 있다. 매년 부도헌다례는 다인(茶人)들이 부도탑에 차를 올렸다. 올해는 특별히 학인 및 강원 그리고 한주 스님들이 직접 부도탑에서 헌다를 한다. 통도사는 "14기에 모신 선지식들의 제자들이 생존해 있어 이번 헌다의식도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승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산대재의 미래'는 인재 불사로 청소년 포교 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영축장학금 전달 및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특별상, 대상 등 상금도 전달한다.

영축문화축제 전체 일정은 9월 19일 오전 9시 부터 오색초롱등 장엄으로 시작해 9월 26일에 화엄세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국화가 도량을 채운다. 9월 29일~10월 16일 양산축제도 열린다. 양산 지역의 이름에서 발췌한 '양산'을 모티브로, 우산과 양산에 불교전통 문화인 단청문양을 그려 넣어 통도사 총림문에서 박물관 사이에 설치한다. 총 1100개의 우산에 그려진 단청문양은 모두 전문가가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했으며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가장 중요한 개산대재는 10월 8~9일 동안 개최되며 8일에 괘불이운, 괘불헌공, 부도헌다례, 들차 시음회가 마련되고 9일에는 영고재, 봉축 법요식, 만발공양,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만날 수 있다.

주지 영배 스님은 "개산대재를 통해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영축문화축제는 불자 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불교 행사로 마련됐다. 앞으로 개산대재 행사의 모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획이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자비의 쌀 전달

무료급식소 11곳에 쌀 1100kg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9월 6일 조계종 해운정사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 1100kg은 불교계 무료급식소 11곳에 각각 100kg 씩 전달된다.

박대성 회장은 "부처님은 가난과 질병 등 소외되고 가난한 중생을 위해 진리의 법륜을 펼쳐 보이셨다.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불국정토가 되는 그 날까지 복지 불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식 후 진행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9월 정기법회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선한 일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며 덕을 쌓는 것과 함께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는 것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9월 6일에 조계종 해운정사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불교 총지종,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10월 1일, 부산 동해중학교

불교 총지종은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를 10월 1일 오후 5시 30분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 상설무대서 개최한다.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음악예술제는 기존의 공연 위주 무대를 벗어나 부산지역 사찰 합창단 5개팀이 동참하는 경연으로 열린다.

참가 합창팀은 관음사 환희합창단, 금강감 금소리 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진각종 유가 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등이다. 경연을 축하하는 의미로 총지종 합창단이 특별출연하며 난타, 퓨전 병창, 비보이 공연, 평양예술단의 무대도 마련된다. 마지막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소원 LED 풍선'에 소원지를 작성해 붙이고 함께 날리며 통일을 기원한다.

불교 총지종은 "불교 합창단들이 기량을 선보일 무대가 부족했던 것이 안타까워 마련했다"며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합창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1회 국제 '학춤' 축제

9월 23일~25일 서운암서

통도사 서운암(감원 성파)은 9월 23~25일 '제1회 국제 학춤 페스티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메인 행사는 24일 오전 9시 국제세미나로 문을 열어, 오전 10시 장경각 헌다가 진행된다. 국제 학 세미나는 오전 11시에 시작, 오후엔 차시연 및 통도사 학춤 전승자 백성 스님의 학춤 공연, 산사음악회 등 무대가 마련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두루미 학자인 마사토미 히루유키 교수, 러시아인으로 국제두루미재단에 소속된 엘레니 일리아센코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통도사 서운암 감원 성파 스님을 비롯해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운암은 "통도사 학춤 세계화 추진 및 문화재 등재를 목표로 두고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어플 다운만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주)벤폴, 첫 캠페인 출발 '아동학대 반대'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를 꿈꿉니다. 30대 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교를 만나 자주 들었던 말이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어플 '벤폴'이 출시된 이유다. 이미주 (주)벤폴 대표이사는 '벤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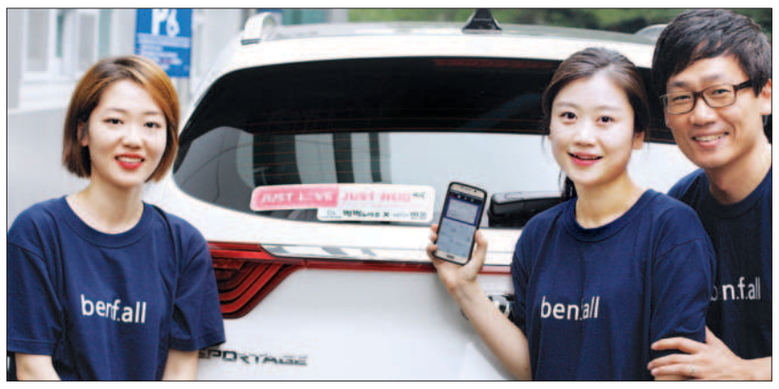
벤폴은 '베네핏 포 올(benefit for all)'의 약자로 모두가 이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탄생됐다.

벤폴 캠페인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하고 원하는 캠페인에 참여신청하면(주)벤폴이 캠페인에 필요한 차량 부착 스티커를 보낸다.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캠페이너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포인트를 지급받아 일상생활 가운데 편의점,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1만점을 받는다. 캠페이너들은 받은 포인트를 손쉽게 어플을 통해 기부할 수 있어 나눔 활동에도 동참 할 수 있다.

이미주 대표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현금처럼 포인트를 받으니 더욱 신이 날 꺼라 생각한다. 특히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 사람 당 기업서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캠페인이나 광고를 보는 행동을 넘어 차를 활용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사회에 일정 수익이 환원되는 공유서비스인 것이다.


(주)벤폴은 나눔과 캠페이너 모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첫 시작을 알렸다. 이미주 벤폴 대표(가운데)와 직원들의 모습.

벤폴의 첫 캠페인은 어린이 학대 반대다. 첫 번째 공식 후원처는 불자 기업으로 알려진 (주)따꼬(대표이사 진상표)로 베베누아주 친환경 유아 건티슈를 제작하는 곳이다. 캠페인 기간은 8월 26일~9월 30일이다.

이미주 대표는 "현재 벤폴 홍보 방법으로 개인 차량이 이용되지만, 앞으로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첫 공식 캠페인을 통해 알로이시오힐링센터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센터에 필요 물품을 10월 중에 전달 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와 지역마을은 운명공동체”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



광주지역 도심포교의 떠오르는 모범으로 자리잡은 사찰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선덕사(주지 원묵 · 사진)는 9월 7일 ‘이웃 돌아보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행사는 매년 2~3회에 걸쳐 명절과 연말에 늘 이어지는 선덕사 대표 활동 중 하나. 이웃과의 정(情)을 나누고 돌아온 주지 원묵 스님을 만났다.

선덕사가 광주불교계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사찰의 공동체 실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을이 없으면 절도 없습니다.”

주지 원묵 스님이 생각하는 사찰과 마을과의 관계다. 그래서 내건 사찰 운영철학 또한 ‘우리 절, 우리 마을’이다.

현재 선덕사는 내부적으로는 사부대중공동체를, 외부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재가불자들도 불교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운영을 대부분 스님이 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래되면 소임을 사는 스님도 힘들고 사찰도 건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스님은 진리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해야 하는데 절 살림살이부터 모든 것을 챙겨야 하다 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재가불자들이 사찰운영을 비롯해 수행도 같이 하고, 의식 집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덕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 사찰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사찰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선덕사의 최고의결기구로 만들었다.

운영위원회 구성 또한 각 신행회 대표뿐만 아니라 불교대학 학인대표, 경전공부반 반장, 각

운영위원회에 사찰 운영 위임

주민과의 소통 프로그램도 다채

“마을 건강해야 절도 건강하다”

시설대표 등 사찰의 모든 운영주체가 참여한다. 구성원이 퍽 독특하다는 생각에 스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 역할이요? 그저 사찰의 모든 구성원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이죠.”

원묵 스님은 불교 가치를 높이면서 전법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사찰운영은 재가불자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가치인 마을공동체 실현에 대해서는 선덕사의 공간활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선덕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인데 1층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 찻집, 마을 도서관(대안도서관 티움)이 이곳에 있다. 사찰에서 가장 편한 1층 공간을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층은 강의를 전담하는 공간과 요사채, 그리고 3층은 대웅전이 있는 불교공간으로 활용된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인권문화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순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캠프, 책읽어주는 도서관, 시모임 나루터, 바느질 모임, 밤실 마을길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불교 프로그램은 어린이법회 외에도 청소년 명상, 삼장학림(경전과정), 걸음마 불교학당(신도기본교육), 무등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지역민들을 위한 포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에 절이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없으면 절이 없고, 절은 마을에 의지해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절은 마을문제를 고민 안 합니다. 항상 불교문제만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을과 절이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원묵 스님은 산중에서 점차 도심과 가까워지는 불교의 변화 역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도심 포교의 선구자는 부처님입니다. 불교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로, 도심포교의 이유가 바로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심포교에 대한 선덕사의 새로운 시도는 이같은 지향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광주불교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9월 3일 남원서, 화엄불교대학 우승



한마음 체육대회서 진행된 배구경기.

전북지역 불교대학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제16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3일 남원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지역의 남원, 무주, 이리, 전북, 화엄, 참좋은우리절, 정읍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체육대회는 배구, 단체 줄넘기, 2인3각, OX 교리퀴즈 등의 경기를 펼치며 불교대학인들의 화합을 다졌다.

남원불교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 스님, 남원불교대학 학장 응묵 스님, 이리불교대학 학장 덕림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불교대학 관계자들과 신행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전북지역 불교대학인들의 잔치를 축하했다. 대회서는 화엄불교대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해마다 가을에 각 지역불교대학이 순환 주최하면서 불교대학간의 소통과 화합,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대강당 / 오후 1시 30분

■주 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 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법왕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Samgha Mahanayaka Committee, The Most Venerable Dr. Bhaddanta Kumarabhivamsa (Abhidhajamaharattaguru, Aggamahapandita, Abbidhaja-aggamahasaddhammajotika)

❶ BHADDANTA EIN DA PA LA TIPI TAKA DHARA TIPI TAKA KAWI DHA TIPI TAKA DHARA DHAMMA BHAN DAGARIKA

❷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Dr MOK TAK

❸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Yangon Division Sangha Nayaka Committee, The Venerable Dr.Bhaddanta Eikdi Bala (Aggamahasaddhamajotikadhaja, Ph.D.Buddhism)

❹ AGGA MAHA SADHAMA JOTIKADHAJA BADDANDA NAGA DIPA



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보시의 화신 Dr Khin Shwe

한국본부 三師 교수아사리 : 현담 | 갈마아사리 : 혜정 본좌스님 외 108 證明團

10월 4일 각 정당 의원들과의 오찬 | 10월 3일 부평역광장 미얀마타운 명명식 축하법회

합동 建幢(건당) 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의식 봉행 1시 30분

관리위원장 : 성각 / 조직위원장 : 원명 / 의전위원 : 성봉스님 외 9명

건당. 품수 심사위원회 의장단 : 혜선. 무상. 진성. 혜관. 심오. 송몽. 법산. 도명. 법현

세계불교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법회 추진위원 : 이종관. 대공. 대도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3師 108 證明團에 큰스님들을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후 원 : 국회정각회 / 동국대학교총동문회 / 용성 대각사상선양회

총괄본부장 大僧正 목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4대 종교, 한 자리서 상생 염원한다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9월 20~24일
전주 풍남문광장 비롯해 전북 일대서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 등 우리나라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9월 20~24일까지 전라북도 일대서 닷새간 열린다.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4대 종교성지가 고루 분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여는마당 △종교열린마당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어울마당 △닫는마당 등 크게 여섯 마당으로 나뉜다.

첫날 오후 7시에 전주 풍남문에서 열리는 여는마당은 혜광 스님의 색소폰 연주, 개신교 판소리, 원불교 교무밴드, 천주교 중창과 더불어 4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종교열린마당은 21일 평화의 날 ‘이순이 루갈다’ 공연을 시작으로, 자비의 날 가면극, 사랑의 날 뮤지컬 ‘문준경’, 은혜의 날 ‘원불교 100주년 뮤직스토리’ 등 각 종교별 야외공연이 풍남문광장서 매일 열린다.

종교문화마당은 종교와 의료 · 교육 · 여성 · 인권 · 과학 · 문학 · 성물 · 음식 등 각 종교에 녹아 있는 문화콘텐츠가 풍남문광장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시전시로 진행된다. 또 최근 다양한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는 각 종교탐방을 비롯해 이웃 종교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참여자는 전주한옥마을 투어 및 전라북도 종교문화탐방 무료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홈페이지(www.wrcf.or.kr)에서 접수 후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21일 오후 4시에는 연민(憐愍)을 주제로 한 세계종교포럼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포럼은 유네스코의 마토코(Edouard Matoko) 사무총장보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불교 성우 스님(조계종 제17교구장), 원불교 김혜봉 교무(전북교구장), 천주교 이병호 주교(전주교구장), 개신교 백남운 목사가 대담한다.

한편 개막식전 행사로 20일 오후 2시에는 1000개의 타악기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타악거리행렬 ‘천상의 북소리’가 펼쳐진다.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천사의집, 임마누엘쉼터, 사랑의 보금자리, 디딤돌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행사 관계자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축제를 마련했다”며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에 맞춰 축제를 통해 4대 종교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감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지역 사찰들 ‘사랑나눔 연탄나눔’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연탄 6천여장 전달

마이산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등 진안지역 사찰들은 9월 1일 진안군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한 ‘사랑나눔 연탄나눔 대축제’에 참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겨울나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총 3만장의 연탄이 저소득 가정 100세대에 전달된 이날 연탄나눔 대축제에서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진안군 마령면 지역 13가구에 각 300장의 연탄과 자비의 쌀 40kg, 명절선물을 나눴다.

쌍봉사(주지 보경)와 고림사(주지 성목)도 각각 5가구 1500장, 3가구 900장을 준비해 직접 배달까지 마쳤다. 행사에는 나누우리 봉사단과 각 사찰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아울러 이번 연탄나눔 대축제는 진안군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학생, 각 종교단체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마이산 탑사 스님과 재가자들이 연탄봉사를 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산간지역인 진안은 평지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며 “올해는 특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어려운 이웃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삿된 지혜는 반드시 분열 초래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미후'와 싸우는 손오공

여색의 관문 헤치고 다시 나선 불퇴전의 길!
이번엔 겁 없는 산적님들 등장이요!
앞서 날뛰던 산적 두목들
손오공의 여의봉에 간뇌도지(肝腦塗地)….
간과 뇌를 땅에 바른다던가?
현장법사 그 끔직한 모습에 질색을 하지만
손오공도 슬슬 웃어넘기고 길 재촉.
인심 좋은 노인 부부가 있는 집에 묵게 된다.
그런데 아뿔싸!
이집 손주가 산적 무리 가운데 하나였구나.
두목 잃고 뿔뿔이 흩여졌단 졸개 무리들
밤늦게 이 집에 찾아들고 현장법사 일행의 말매인 것을 보곤 두목 원수 갚을 겸 덮칠 것을 모의한다.

착한 노인 부부, 현장법사 일행을 뒷문으로 달아나게 한다. 그런데 두목 닮아 겁 없는 졸개 무리들, 겁 없이 쫓아오네.

역시 두목과 마찬가지로 간과 뇌를…!

손오공은 주인집 손자 목까지 베어들고 현장법사 앞에서 시위를 한다. 현장법사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당장 파문이다!

손오공 뒤늦게 사죄를 하지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어! 긴고주를 줄곧 외워 손오공 머리테를 조여 대니 손오공도 하릴없이 눈물 흘리며 하직을 한다.

수렴동으로 돌아가 원숭이 왕노릇하려니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계면쩍고…. 할 수 없이 관세음보살께 가서 눈물겨운 하소연을 한다.

관세음보살님, 손오공을 한차례 꾸짖고선 현장법사 일행이 곧 재앙을 당할 것 같고 그 때 되면 너를 찾을 테니 그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신다.

한편, 손오공 내 쫓아버린 현장법사 일행 저팔계 사오정, 배고프고 목마른 현장법사 위해 물 뜨러 간 사이, 짜잔~ 손오공이 등장하신다.

"스승님, 제가 없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 없다! 이 잔인한 원숭이놈아!"

(중간 생략)

"이 매정한 중놈아!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손오공 폭언, 폭행을 하곤 짐을 빼앗아 사라진다.

저팔계 사오정, 어찌어찌하여 밥 빌고 물 떠서 돌아오니 으악! 이것이 무슨 사태냐!

다행이 현장법사가 숨은 붙어 있어 급히 모시고 인가를 찾아 일단 급한 불을 끄곤,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서 달래려고 화과산 수렴동으로 찾아간다. 찾아가보니 침으로 가관이다.

손오공이 현장법사 젖히고 스스로 경 가지러 가겠다고 원숭이들을 둔갑시켜 현장법사랑 백마랑 다 만들어 놓고 준비 중이다.

홀로 경을 가져온 공로를 차지하여 남섬부주의 교조가 되고 천추만대 이름을 떨칠 예정이래나?



그림 · 최주현

격분한 사오정, 멋진 사오정

현장법사로 둔갑한 원숭이를 단매에 때려죽이고 씩씩거리며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뵌다.

그런데 손오공이 뻔뻔하게 관세음보살 처소에!

"야! 이 나쁜 원숭이 새끼야!"로부터 시작하여 여차저차, 저차여차…. 이쪽저쪽의 사정이 밝혀진다.

손오공도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사오정과 함께 화과산 수렴동으로 쳐들어가니 정말 자기와 똑같은 손오공이 왕노릇하고 있네! 또 어찌 되었을까?

두 손오공 있는 재주를 다해 다투지만 승부가 나지 않네. 관세음보살님께 함께 찾아가지만 관세음보살님도 알 수가 없어 긴고주 외워 머리테를 조여 봐도 두 손오공 다 데굴데굴….

천상세계로 달려가 봐도 모든 신장들도 절레절레 옥황상제도 갸오똥~ 저승세계 가서 염라전 명부를 뒤져봐도 안돼 결국 부처님 찾아 영취산 뇌음사로….

부처님, 대중들에게 미묘법을 설하고 계시네. 두 손오공 싸우며 오는구나. 부처님 대중들에게 이르시네.

"너희들은 모두 한 마음이로구나. 그런데 보아라!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오는구나."

관세음보살과 대중들에게 세상의 여러 신기한 요괴들을 설명하시곤 그 가운데 정말 이상한 네 가지 원숭이를 말씀하신다.

석후(石猴), 마후(馬猴), 원후(猿猴), 미후(fl 猴)가 그것인데 지금 손오공으로 둔갑한 것은 바로, 바로, 바로… 여섯 귀를 가진 미후로다!

'미후'는 또 다른 손오공
분열된 마음을 상징해
밝은 견해 속에 화합 나와

정체를 드러난 미후, 급히 벌로 둔갑하여 날아오르네. 부처님, 바릿대를 휙~ 던지시네.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더니 미후는 부처님 밥그릇에 갇혔구나!

손오공 참지 못하고 여의봉 휘두르니 미후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도다. 부처님 법력으로 쪼개졌던 두 마음 합해지니 자연히 일행의 알력도 사라지고 다시 함께 큰 길을 가는구나! 오늘도 힘차게!

이번 이야기는 전에 잠깐 나왔던 자기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내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 그렇다 하여 함부로 야단치거나 하면 내가 나에게 반항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참다운 친구를 사귀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독여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가 쪼개져버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올 수 있다구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는 정말 극적으로 벌어지게 되네요.

우선 현장법사와 손오공의 분열이 일어나지요? 진실하게 도를 구하는 신심, 그렇지만 지혜를 갖추지 못한 신심과, 제법 눈은 밝지만 진정한 자비심과 실천이 부족한 지혜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주역(周易)〉에는 "서리를 밟다 보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면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죽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유래가 차츰 차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일찍이 판별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법사와 손오공, 그 갈등도 그렇게 차츰 차츰 쌓여 온 것일 겁니다. "저 원숭이 녀석, 재주 좀 있다고 제멋대로야!"하는 현장법사, "에이, 스승은 너무 맘은 여려가지고…. 자비심은 자기만 있나?"하는 손오공…. 그 둘 사이에 알게 모르게 틈이 벌어졌겠지요. 그리고 둘 사이만 아니라 일행들도 힘든 여정 가운데 은근히 서로 틈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서유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삼장법사는 속으로 노여움이 가지지 않은 채 말에 올랐고, 제천대성은 마음이 틀어져 있었으며, 저팔계와 사오정도 한편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론 불만을 품었다"

여러 사람이 여행하는 가운데 종종 심각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아무래도 집떠나면 고생이라고, 여행 중에 피곤하게 되면 조그만 일로도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고, 그것이 짜증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손오공 일행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는 손오공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부처님이 "마음과 마음이 싸우며 온다"고 표현했듯이, 마음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좀 자세하게 말하면 마음 가운데서도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앎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앎은 욕망에 부려질 수도 있고, 참된 열정이나 서원에 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욕망에 부려져서, 지혜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밝은 견해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앎, 그것은 삿된 지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삿된 지혜가 바로 가짜 손오공으로 등장하는 것이겠습니다.

요즘에는 소설의 장르 가운데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종류의 소설 가운데는 '도플갱어'라는 것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도플갱어'라 부르는데 그 두 존재가 만나게 되면 소멸해버린다거나,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 손오공이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난 셈인가요? 그런 설정에 따른다면 적어도 어느 한쪽이 죽거나 없어져야 하겠지요? 있어서는 안 될 분열! 그것을 어찌 극복할지…. 다음 회에 뵙지요.



그 절집의 빛

⑳ 금정산 범어사 대웅전 닫집

우주 속의 우주, 적멸의 집



아자형 보궁형 닫집이다. 대들보에 닫집지붕을 얹어 허공에 떠있는 듯이 보인다.



닫집 좌우 모서리에 조영한 비천 네 분.



밑에서 올려다 본 닫집.

아자형(亞字形) 보궁형 닫집
양 대들보에 닫집 지붕 걸쳐
용, 연꽃, 색구름은 공통소재

닫집, 집 속에 조영한 독립건축

한국사원의 가람구조와 장엄형식은 일반적인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진입체계도 보편적이며 불전을 장엄하는 회화, 조형, 공예양식도 일맥상통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원 자체가 화엄 만다라적 구조를 띈다. 불전 건물에서 불보살 세계의 상단, 호위신중의 중단, 영가를 위령하는 하단의 3단 구성으로 분화하고 재편한 점도 통일적이다. 불보살을 봉안한 상단에는 위계적 중심 특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불교장엄적 요소를 집대성해서 결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불단, 불상, 닫집, 후불탱화, 단청 등 불교장엄의 핵심요소들이 모든 예술적 역량을 극대화 한 경지로 집중한다. 종교와 예술은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일깨우고 내면의 본성을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정신적 작용에서 서로 부합하고, 또 서로를 고양한다. 그런 점에서 상단영역은 종교와 예술이 서로 일체화 된 공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곳에서 예술은 종교적 교리, 혹은 경전의 내용에 영감을 얻어 이상화 한 초월세계를 구현하고, 또 종교적 교리는 예술양식의 창조적인 해석에 자유로움을 부여한다. 그를 통해 종교적 거룩함이 예술의 미적체험으로 현현한다. 불전건물의 상단장엄에서 가장 독특한 형식은 건축 내부에 또 하나의 독립건축을 구현한 양식일 것이다. 프랙탈 도형처럼 자기유사성을 반복한 건축 안의 건축으로, '닫집' 이라 부르는 공예장엄이다.

익산 숭림사 보광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의 닫집 등은 닫집미학의 정수로 손꼽힌다. 범어사 대웅전의 닫집은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위상에 놓인다. 심미성, 형식성, 불교교리의 해석능력 등에서 두루 돋보이는 까닭이다.

닫집의 '닫' 에 관해서 〈명문 국어사전〉에서는 '닫' 을 부사 '따로' 의 옛말로 설명하고 있다. 박용수선생의 〈우리말 갈래사전〉에서는 닫집을 "법전 안의 옥좌 위나 법당의 불좌 위에 만들어 단 집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닫집은 그러니까 집 속에 따로 독립한 건축이다. 법당 속의 법당, 집 속의 집이 닫집이다. 자연세계에서부터 닫집에 이르는 중첩적 층위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산지지형의 연화좌 자리에 가람이 들어서고, 가람의 중심부에 대웅전 등 중심불전을 경영하고, 다시 그 가운데에 닫집을 내서 불보살을 모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보살의 몸 안에 다시 극히 내밀하게 불복장물을 봉안한다. 나선형의 구심점을 지향하는 경이로운 구조다. 태풍의 눈이나 원자핵 같이 내밀한 에너지가 응집한 근원을 연상케 한다. 감싸고 또 감싸는 사리장치의 장엄구조와도 닮았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심오하고 거룩하다.

닫집에 걸린 공통 편액은 적멸궁

물질에서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물의 근원에 이르고, 종교장엄에서는 교의적이며 정신적인 본성에 이른다. 닫집은 불교장엄의 궁극에 이르는 상징주의적 사변의 마지막 관문처럼 보인다. 닫집의 내부는 궁극의 깨달음, 열반적정의 공간이자 적멸의 공간이다. 형식적으로는 꽃 속의 꽃, 집 속의 집의 구조이지만 그 역시 깊이와 본성에 이르는 방편일 따름이다.

불교장엄의 소재와 구성은 경전 속에서 모티프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연화장세계라든지, 화엄세계, 극락정토, 연기법 등 불교 세계관의 핵심적 개념들은 그 실재성의 여부를 떠나 대단히 관념적이며 초현실적이며 정신적인 세계다. 문자언어나 조형언어로도 이를 수 없는 언어도단의 절대경지다. 예술가와 장인들은 예술적 창의력으로 필연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소재는 현실과 경험에서 차용한다. 대신 상징과 함축의 형식을 갖춰 시각화, 구체화 한다. 닫집은 집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적으로 궁전이다. 몇 몇의 불전 닫집에서는 닫집 처마에 편액을 걸어 부처께서 상주하시는 보궁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컨대 논산 쌍계사 대웅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등에서 편액을 통해 닫집이 부처님이 계신 궁전의 표현임을 실증하고 있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 삼존불을 모셨지만, 각 부처님마다 각각의 닫집을 가설한 특이한 경우다. 처마에 단 편액이 각각 '적멸궁', '칠보궁', '만월궁' 이다. 수타사 대적광전의 닫집 편액도 '적멸궁' 이다. 흥국사 영산전의 닫집은 이층의 형식을 갖춘 희귀한 중층 닫집이다. 아래는 '적멸궁' 이고, 위는 '내원궁' 의 편액을 갖추고 있어 이채롭다. 공통적으로 적멸궁이라는 표상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적멸로 귀일하는 것일까? 불교의 궁극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지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절대적 공(空)에 있는 까닭이다. 집 속에 집, 우주 속에 우주를 경영한 불이(不二)의 집, 대자유의 집, 적멸의 집이 닫집이다.

범어사 대웅전의 닫집형식은 아자형(亞字形) 보궁이다. 내림기둥이 모두 12개이지만 닫집 무게를 받치는 역학적인 기능의 기둥은 앞쪽 두 활주뿐이다. 나머지 10개 내림기둥은 공중에 떠있는 경이로운 구조다. 내림기둥은 힘을 분산하는 역학적인 부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한 공간임을 암시하는 장식소재로 활용된다. 하늘에 떠있는 보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양 대들보에 닫집 지붕을 걸쳐둔 까닭에 있다. 중력을 거슬러 떠있는 닫집을 통해 장인예술가는 닫집이 하늘에 경영한 부처님의 적멸보궁임을 강조한다. 그 보궁에는 닫집장식의 보편적인 요소인 용, 봉황(극락조), 비천, 오색구름, 연화문, 넝쿨문들을 들쑥날쑥 배치해서 공간의 조화로움을 꾀했다.

여의보주는 깨달음의 마음

닫집장식의 지배적인 소재는 용이다. 삼존 불보살 자리에 맞춰 닫집도 세 칸으로 구획해서 각 칸에 용을 배치했다. 불보살의 위계에 따라 상응하는 용의 크기와 위세도 다르다. 하지만 세 용 모두 몸통을 한 바퀴 감아 똬리를 틀었고, 꼬리 부분에서는 배배 꼬아 역동성을 강화했다. 저마다 응시하는 시선도 자신이 맡은 방위로 분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용의 조형이 호법과 결계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붉은 보주의 기운을 여섯 곳이나 퍼트려 두었고, 세 용은 여의보주를 다섯 발가락으로 움켜쥐거나, 입에 물기도 하고, 다양한 오색구름을 움켜쥐었다. 여의보주나 오색구름은 득의의 깨달음이고, 본질적으로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종교장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현상학적인 외형의 경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종교장엄에서 언어의 길이 막힌 곳에 조형의 상징을 통해 방편반야를 구현하는 것이 다반사인 까닭이다. 붉은 여의보주는 초현실적이며 절대적인 자유자재의 깨달음의 상징임을 직시해야 한다. 진리의 공간에서 물질적인 보배를 취하는 수준으로 종교장엄이 전락할 까닭이 없다. 이 닫집공간은 적멸의 공간임을 재차 환기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깨달음은 성문, 연각의 삼승이나 이승법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승법의 무상정등각이다. 보주가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상징한다면 보주는 여래의 본성으로 곧바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지혜의 변재(辯才)이자 진리의 광명 그 자체다.

범어사 닫집장엄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조형은 비천(飛天)이다. 좌우 각각 2분씩, 네 분의 비천이 등장한다. 여타의 조형들처럼 따로 조영해서 모빌(mobile)처럼 철물로 이어 내렸다. 여성적인 세 분은 구름을 타고 해금, 당비파, 박을 각각 연주하고, 선학(仙鶴)을 타고 하강하는 남성적인 한 분은 춤을 펼친다. 비천은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을 사실주의적으로 빌려 표현하고 있다. 유연한 곡선이 우아하고 표정엔 따스한 표정이 흐른다. 동시에 하늘을 나는 표대(飄帶)의 긴 천으로 관념적인 형식으로 이상화 했다. 닫집이라는 적멸의 공간에서 형상은 초자연적이며 초경험적인 상징적 위력으로 발현되는 법이다. 오색구름, 넝쿨문 등도 마찬가지다. 현실의 현상적인 소재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처께서 설법을 위해 사자빈신삼매에 들었을 때 서다림의 허공계에 나타난 불사의한 대장엄누각, 마니보주, 오색구름, 미묘한 꽃, 갖가지 음악 등의 장엄은 여래께서 신통력으로 한 몸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한 티끌 속에 모든 법계의 영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셨다. 곧 닫집의 허공장엄은 부처님의 선근과 위신력으로 장엄한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의 화엄세계의 구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닫집장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용, 연꽃, 구름, 봉황, 학, 비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께서 광명을 놓아 두루 비치는 모든 청정 불국토의 장엄을 두루 관하는 극적인 모티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닫집에 조영한 현상적인 형상의 미추(美醜)와 물성의 차원을 넘어선 불교장엄의 본질이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고요한 적멸의 공간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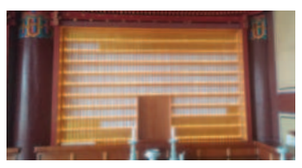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無의 바닥서 찾은 詩로 실상을 보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⑤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

꿈과 幻影

셰익스피어는 '우리는 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폭풍〉4막1장)' 고 일갈한바 있다. 꿈이란 실재가 아니다. 꿈이란 환영이며 꿈의 재료인 우리 역시도 환영이다. 〈목신의 오후(1876)〉보다 150년 전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1725)〉이 있었고 〈구운몽〉보다 436년이나 앞서 일연 스님이 펴낸 〈삼국유사〉에는 '조신의 꿈' 설화가 있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꿈에서 출발한다. 꿈속에서 환상을 실현해보지만 깨고 나면 역시 꿈의 세계다. 꿈으로부터의 각성은 일장춘몽. 그러나 말라르메는 '춘몽(春夢)' 의 의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허무라는 환상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내고자 한다. 우선 〈조신의 꿈〉과 〈구운몽〉의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신의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주 세달사의 승려인 조신은 불공드리러 온 태수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출가해 버리자 마음앓이를 하다 깜박 잠이 든다. 꿈속에서 장원급제하고 그녀와 맺어져 40년을 함께 지낸다. 생활은 곤고해지고 큰 아이는 굶어 죽는다. 하룻밤 꿈속에서 사람의 평생을 경험한 그는 탐하던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 불도에 더욱 정진한다는 줄거리다.

〈구운몽〉은 중국 연화봉 아래 불도를 닦고 있는 성진(性眞)의 이야기다. 성진은 육관대사의 분부로 용궁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팔선녀를 만나 잠시 동안 석교 위에서 희롱하며 정을 나눈다. 그 죄로 아홉 사람은 인간세상으로 내쫓긴다. 성진은 사대부 양소유로 환생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는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자신의 아내로 삼고 부귀공명 등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나 별것 아니었다. 여전히 죽음 앞에 있는 티끌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다.

2500년 전 부처님 재세 시, 외모가 준수했던 붓다의 제자 아난이 성안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등가녀의 딸이 한 눈에 반하고 만다. 그녀는 마술사인 엄마에게 마법으로 그를 유인해달라고 간청한다. 마법에 걸려든 아난이 몽유병자처럼 마등가녀의 집을 찾을 때, 붓다는 신통력으로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마법을 멈추게 하고 그를 구해낸다. 이를 계기로 아난과 붓다의 문답이 이어진다.

마음과 눈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붓다는 "분별의식이 생겨나면 색상, 허공 등의 현상법칙도 따라서 생겨나고 분별의식이 소멸하면 색상, 허공 등의 현상법칙도 따라서 소멸한다. (중략)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 도 없고 '주재' 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五陰, 色 · 受 · 想 · 行 · 識)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오온) 역시 '나' 도 '주재(主宰)' 도 없다"고 한 〈능엄경〉의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

"5음이 망상에서 생겨난 것임을 깨달으면 뒤바뀐 생각을 단박에 녹일 수 있지만 5음을 끊어 없애는 일은 단박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5음을 하나하나 깨뜨려 없애야 한다"며 〈능엄경〉에서 그 하나하나의 격파를 시현해 보이고, 5음의 공성(空性)을 파헤친다. 이 다섯 겹의 감수(感受)의 음경(五陰)은 바로 다섯 가지 망상이 형성한 것으로 실체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실유(實有)라고 여기는 현상계는 사실 우리의 심층마음이 만들어 낸 허

'無 · 거품 · 순결한 시' 세 단어가
말라르메 시를 관통하는 주제
헛됨을 부수고 순수만을 추구

"幻을 여의면 깨달음" 경구처럼
시인 말라르메는 꿈을 깬 '覺者'

상(幻)이다. '나' 는 실로 없지만 거짓으로 있음이 허용되는 가유(假有)는 제7말나식의 '내가 있다' 는 잘못된 생각으로 근본번뇌를 야기한 때문이라고 한다.

꿈을 깬다는 건 '내가 있다고 잘못 안' 전도몽상(顚倒夢想)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여기 과거 7불의 두 번째 부처인 시기불(尸棄佛)의 게송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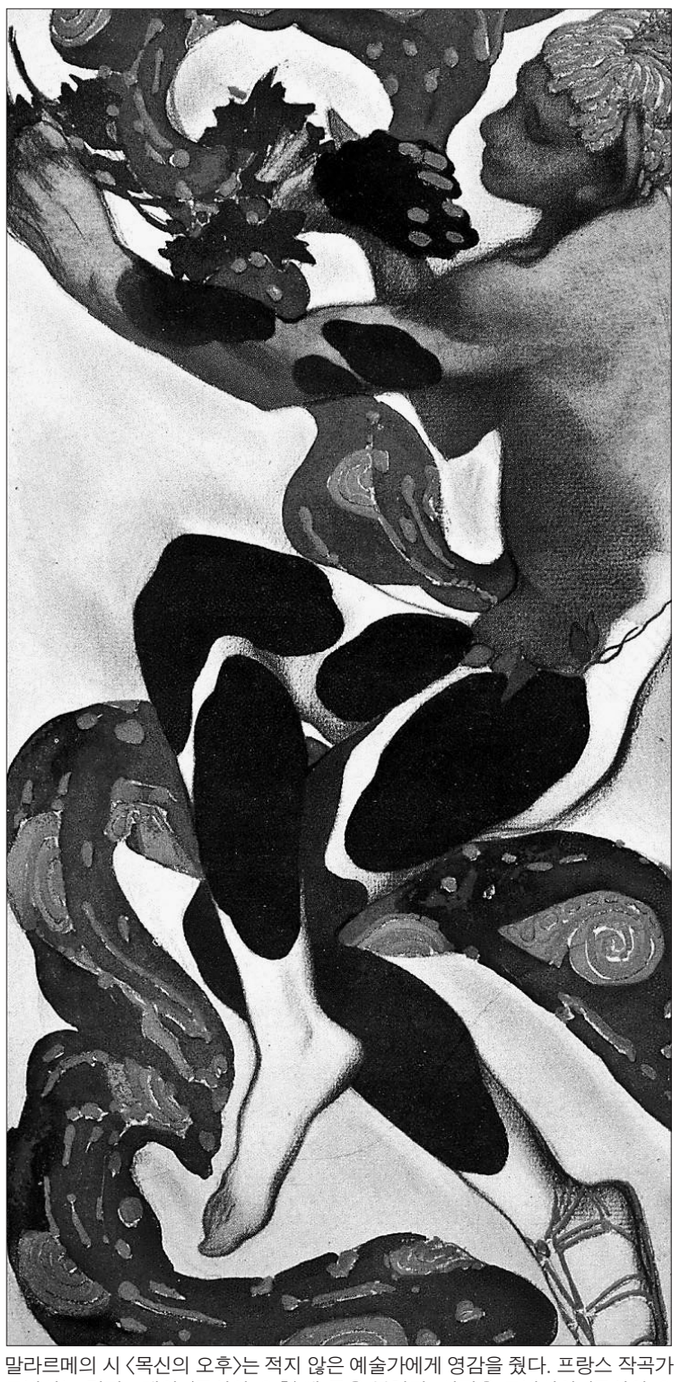
"몸이란 물거품, 마음은 바람(身如聚沫 心如風)/환에서 나온 것은 무근무실상(幻出無根無實相)"

환술로 생겨난 몸과 마음(身識)이 근본도 실상도 없으니 마음(心識)의 실체란 본래 없다는 것. 마음은 본래 무생(無生)인데 근 · 경 · 식(根 · 境 · 識)으로 인하여 온갖 세계가 표출(有)된다. 눈앞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는 것을. 마음 따라 근, 경, 식의 작용으로 만 가지 법이 생기고, 한 생각의 마음 따라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마음의 인연 화합으로 잠시 드러난 그것(인식현상). 그것도 그것이랄 게 없는 것 아닌가. 말라르메는 님프의 뒤꿈치의 그림자를 보며 그런 생각을 키워나간 것이 아닐까?

〈목신의 오후〉를 쓰고 17년이 지난 1893년, 말라르메는 문학지 〈라 플륨〉의 창간 일곱 돌을 기념하는 연회의 주재자가 되어 축배를 겸하여 준비한 시 〈인사 SALUT〉를 낭송한다.

무無, 이 거품, 순결한 시
단지 술잔을 내보일 뿐이니
저 멀리 보이는 인어 떼들의
엎치락뒤치락 가라앉는 모습과 같다

첫 연을 소리 내어 읽으니 축배의 잔을 들고 서 있는 단아한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이 술잔을 들고 여러분 시인들 앞에 섰습니다. 나의 시는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으며, 빈 하늘처럼 순결한 처녀 같은 것입니다. 술잔에 이는 거품을 봅니다. 그 거품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포말 같고, 나는 그 파도 너머로 춤추며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인어 떼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것은 깊은 바닷 속에서 노래하며 헤엄쳐 다니는 아름다운 시의 여신들입니다.' 이런 취지를 담은 시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출발하여 무→거품→바다→항해→창조라는 시작(詩作)의 과정을 소개한다. 평소에 '여러분들을 지도한다는(화요회모임) 생각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다' 고 하던 그가 뱃전 후미에 다소곳이 앉아 동료, 후배 시인들에게 '우리 돛의 하얀 근심에 값하는 모두(시인들)에게 예 올린다' 는 대목은 시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스 현자 같았다던 그의 겸손한 인품을 짐작하게 한다.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는 적지 않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줬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는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에 곡을 붙였다. 사진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를 발레극으로 꾸민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1912년 공연 포스터.

無의 바닥에는 시가 있네

'무(無), 이 거품, 순결한 시(Rien, cette écume, vierge vers)' 세 마디로, 그의 시 정신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 것도 없는 '무(無)' 가 진공(眞空)이라면 '거품' 은 거기에 부유(浮遊)하는 사랑과 미(美)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상징한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아들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절단된 우라노스의 음경이 바다에 떨어져 거기에서 생긴 하얀 물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한다. 그리하여 '거품' 은 관능, 욕망, 출생 등 환영(幻影)의 묘유(妙有)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순결한 시' 란 말라르메가 일생을 추구한 순수시다. 시(詩)란 '절(言+寺)의 말씀' , 문자를 세우지 않는(不立文字) 진리, 혹은 중도(中道)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죽었다가 내 정신의 마지막 보석
상자의 열쇠를 지닌 채, 되살아났네(…)
나는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무(無)까
지의 꽤나 먼 길을 내려갔었네.
거기에는 오직 미(美)밖에는 없으며
그 아름다움의 완벽한 표현은 단 하나
뿐이네. 시(詩).
-서한 카잘리스에게(1866년)

일생동안 시를 종교처럼 생각하며 '시의 종교' , '미의 종교' , '이상의 종교' 에 도달하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고 구도자적 삶에 헌신한 결과 그는 보석상자(詩)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순수시는 세상의 헛됨(虛無)을 덮을 수 있는 미(美)와 예술, 그리고 지(知)의 전변을 위한 고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분신인 이지튀르가 말하듯 허무(虛 · 無)는 진실이다. 색(色)만도 아닌 공(無)만도 아닌 유무상즉(有無相卽)의 '허공 꽃' 그래서 허무는 진실일 수 있다. '있음이 곧 텅빔(卽有卽無)' 이고 '텅 빔이 곧 있음(卽無卽有)' 이다. '공즉시색(空卽是色)' 이므로 허무(空)가 진실인 것이다.

말라르메는 허망한 꿈을 깬, 즉 그것이 모두 자신의 욕망과 집착임을 자각하고 그것의 비실체성(空性)을 통찰함으로써 그로 인한 번민으로부터 벗어난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이유다. 자신의 마음이 펼쳐낸 욕망의 그림을 보고 환(幻)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비실체성을 알아차리는 '각성(깨어있음)' 의 상태를 보여준다. 〈원각경〉의 말씀대로 "환(幻)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다." 그는 꿈을 깬 각자(覺者)였다.

10년 전, 나는 파리 제17구 롬가의 89번지를 찾았다. '〈목신의 오후〉가 창작된 집' 이라는 표지판이 반가웠다. 베를렌느, 앙드레 지드, 발레리, 독일의 슈테판 게오르규, 영국의 조지 무어, 오스카 와일드, W · B 예이츠 외 많은 예술가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이 집에 모여 그로그(럼주)술을 들면서 〈목신의 오후〉에 관한 해설을 듣거나 시와 음악에 대해 공부했다고 한다. 손님들은 의자가 모자라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몸체가 작고 야윈 이 시인의 고결한 담론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롬가의 그 좁다란 방에서 우리들
은 바쁜 도시의 소음이나 정치의 풍설이
나 책략이나 음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
져 있었던가!"

나는 앙드레 지드의 회상을 떠올리며 어둠 속에서 그의 5층 방을 향해 머리를 젖히고 올려다보았다. 좁다란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 올라가면 아직도 그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그 방에는 아직도 램프의 황량한 불빛이 켜진 아래, 글을 거부한 하얀 백지 앞의 고뇌로 인해 숱한 밤들을 지새워야 했던 그의 모습이 붙박여 있는 듯했다.

악의에 찬 너의 쓸데없는 반항으로 어
디로 달아날까?
나는 미쳤다. 창공이여! 창공이여, 창
공이여, 창공이여! **-〈창공〉에서**

시인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했다. 글쓰기는 그에게 이런 아픔이었다. 〈불운〉에서 그는 시인의 정신적 좌절을 나타내며 〈종치는 사람〉에서는 목을 매어 자살하는 모습을 환기시킨다. 시인으로서의 무능에 대한 자신의 통절일 것이다.

생활에도 서투른 그를 잠깐 추억하는 동안 일행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건널목을 향해 나는 불편한 다리로 그들의 후미를 황급히 쫓아야 했다. 먼 이국땅에서 온 손님을 배웅이라도 하듯 이지튀르가 다가와 한 마디를 내게 일러준다.

무(無)는 떠나고
순수의 성(城)은 남아 있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이 한 마디가 아직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무(無)의 바닥에서 시(詩)를 건져 올렸지만 나는 무(無)의 바닥에 오롯한 법신(法身)을, 그 진리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맹난자 수필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리더에게 聽하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 의원)

政治의 핵심 가치는 '爲民'…

〈위민〉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정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내면적인 자기 성찰과 수행정진을 통한 평화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런 이상적인 참된 정치를 구현하는 이를 불러 전륜성왕이라 한다. 제20대 국회 정각회가 9월 2일 출범했다. 조계사서 열린 개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회장으로 취임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57)과 불자국회의원들에게 전륜성왕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이 힘든 시기, 새 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주호영 의원에게 정치 철학, 법과 제도,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주호영 국회의원은… 1960년 12월 10일 경북 울진서 태어난 주 의원은 대구 능인고 •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듀크대서 수학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제17대부터 이번 20대까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특임장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을 맡았다. '자우'(慈宇)'란 법명을 가진 주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금강경〉〈반야심경〉〈화엄경〉 등 경전공부를 본격 시작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불교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 20대 국회 입성 전 '공천탈락'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새 정각회장으로 취임까지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정각회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초창기 회장을 맡은 권익현, 서석제 등 쟁쟁한 선배 분들의 뒤를 이어 불자모임 회장이 돼 불교 집안인 저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각회는 현재 이웃종교 모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불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정각회가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 국회 정각회원이 다소 감소한 걸로 압니다. 회원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감소로 인해 운영에 위축이 있으신지요?

-국민불자 비율에 비례하는 불자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300명 중 41명 정도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실제 파악된 불자의원은 정각회에 등록된 수보다 많지만, 이웃종교가 성행하는 지방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못한 의원도 있습니다.

불교가 선거를 치를때는 솔직히 표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종교입니다. 가톨릭의 경우 교적제도가 있어 신도들이 성당 주위로 생활 터전을 옮기거나, 주일 혹은 평일 미사 참여도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 매우 수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임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불교는 초하루나 일요법회가 아닌 이상 신도들이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조직화돼 있지 않아서 불교 정치인들이 선거 치르기가 좀 불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자 국회의원의 증가 추세가 갈수록 좋아지기 보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20대 정각회 운영 계획도 소개해 주세요. 지난번 정각회 회원들과 중국 선문화 기행을 다녀오시고, 앞으로 선불교 교리강좌도 개최할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각회는 신행 생활을 돈독히 하는 게 목적인 신행 모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각회는 정치인들 모임이다보니 그동안 수행이나 공부보다는 소위 종단관련 외호에 무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신행 모임의 본질에 충실해, 신실한 신행 생활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 교리 강좌, 간화선 공부에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주제의 일관성 없이 그때 그때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여는 것이 아닌 불교가 관심 갖는 주제들, 예들 들면 불교적 우주관, 간화선, 공사상, 무아, 윤회 등에 대해 당대 최고로 많이 공부한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형태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중국 성지순례에 이어 많은 회원들의 요청으로 내년 3월에는 미얀마 바간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추진 중입니다.

20대 국회 정각회장에 취임하다

경전공부, 교리강좌 등 기획
최고 전문가 초청 강의 마련
내년 3월, 미얀마 순례 계획

20대 국회서 중점추진 불교 정책

각 규제들 '신앙의 자유' 침해 심각
불합리한 불교 규제 철폐에 노력
스님들의 노후복지 정책도 추진

▲틈틈이 재가불자로서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불교집안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땐 초파일에만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서 읍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집이 울진의 '동림사'라는 절 담벼락에 붙어 있었습니다. 동림사 절 마당이 어린시절 놀이터였지요. 당시 주지 스님께서는 〈반야심경〉을 다 외우면 과자를 사주시곤 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에 입학해 교학을 배웠는데, 당시 학교 이사 스님들이 대구 · 경북 5본산 주지 스님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점점 불교와의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경전이나 경구가 있으신가요?

-부처님 가르침중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론 교통사고 때의 경험이 와닿습니다. 1992~4년 판사시절 김천지원서 근무하며 아침 한 시간씩 경전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를 겪고 크게 다쳤을 때 〈금강경〉의 '절절지해시 약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節節支解時 若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應生嗔恨)' 즉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가리 찢길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구절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편안해졌지요. 경을 읽는 공덕이나 효험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평화 그 자체로 큰 위안을 얻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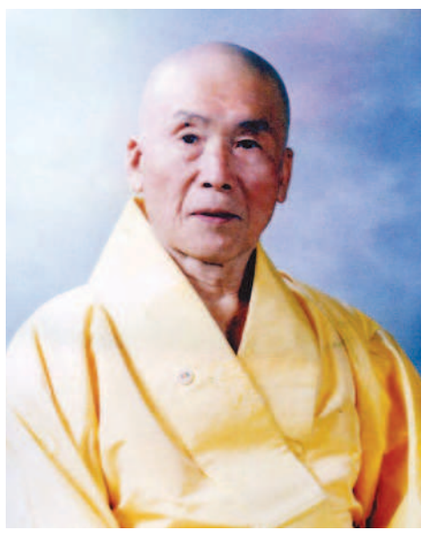
▲20대 국회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좀 해주세요.

-불교계와 관련해선 우선 관련 법령 13개, 시행령 3개를 중점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현장서 경험하는 분들의 절절한 요구를 우선으로 듣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웃종교나 다른 영역과 형평성을 따져서 특혜를 주진 못하지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해지 또는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대부분은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실 사찰들은 신라, 고려 시대부터 지어져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진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 해도 규제가 많아 제대로 건축할 수 없고, 건물 한 군데 제대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분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 공간적 토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스님들의 노후복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EITC(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일을 하면 국가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님들은 일정 월급이 없기 때문에, 사회환경이나 종교환경이 급변하는 이 때 지속가능한 큰 그림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람료는 용어에서 오는 괴리가 큽니다. "나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 왜 징수하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점은 수정돼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사찰림, 경내지 등 종단이 소유하는 땅에 입장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과 명분이 다른데서 오는 반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서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위안을 얻습니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45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45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9월 좋은날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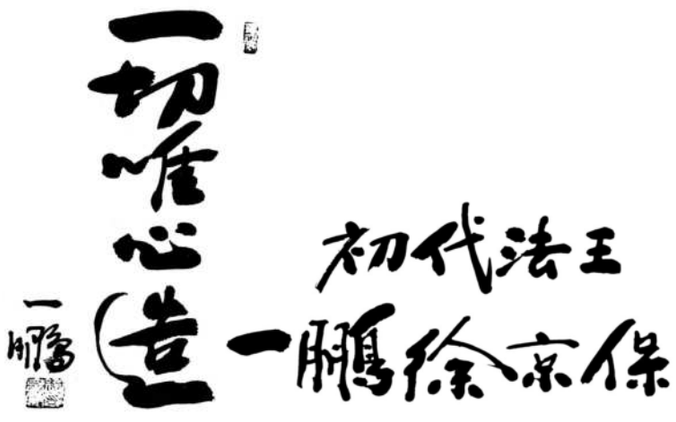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60(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총본산 청운사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 문 의 : 010-9257-0278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명예총재 청운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주



■ 후원 :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대불종, CBC108 · TV 연합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 일붕법왕청 뉴스신문

“공인 의식과 사명감 가장 중요”



다. 때문에 사찰관람료나 사찰입장료란 이름으로 징수한다면 반발은 줄어들 겁니다. 문화재관람료라면서 실제론 사찰입장료를 내니 반발이 있는데, 이런 반발을 불교계가 계속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각 분야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의식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 손문이 늘 쓴 휘호는 ‘천하위공’입니다. 천하는 공(公)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 개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나 지도자들이 공인의식과 공직자의 사명감, 즉 국민민복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지켜지면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이 다 해소될 겁니다.

▲현각 스님의 발언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질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해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시선에 비춘 모습속에서 과연 내 잘못은 없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현각 스님의 지적들은 대부분 옳습니다. ‘당신은 어떤데?’ 라고 반발할 게 아니라 종교단체라면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단체 본연의 위치나 자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죠. 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불자들의 기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 위해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가 많이 변해도 성직자들이 여전히 존경받는 이유는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가치관과 실천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주장하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사회봉사나 복지체계 출발도 늦었고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훨씬 더 조직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말했듯이 불교는 현대사회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치유할 사상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설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체계적이지 못한 법회입니다. 종단 차원서 정리된 표준 법문, 통일된 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생명존중에 대해서 표준화된 법문을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불교계 규제 철폐에 누구보다 앞장 서 오셨는데, 그동안 대표적 성과를 꼽으신다면요.

-국립공원 내 고찰들은 ‘자연공원법’서 관리합니다. 자연공원법의 핵심은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방향과 더 개발해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개발하는 사례가 더 우세합니다. 한국사회는 후자의 방향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고찰을 국립공원과 묶었다면, 이제 제가 발의한 ‘문화유산보존지역’이라는 개별 개념이 설정됐습니다. 만약 문화유산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입니다.

그린벨트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감면했는데 이것도 큰 성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해 나라서 주는 세금을 다시 부담금 명목으로 나라에 빼앗기는 정책은 모순적입니다. 공익성이 사찰문화재보다 훨씬 덜한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증오범죄방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증오방지법상 규율 대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오방지법에선 인종, 지역,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했는데 헌법서 보장하는 자유의 개념은 이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증오범죄가 가진 부작용을 모순 없이 규제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 사례를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댓글 문화가 성행해서 증오 범죄나 악플 정도가 심합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다

상대방 경청… 갈등해결 지름길
방법론 차이는 대화로 극복 가능
부처님 가르침서 정치철학 배워

▲최근 입양특례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아직 영아원조차 없는 불교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입양특례법은 정책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입양아들이 뿌리를 찾기 쉽게 하려고 반드시 가족부(호적)에 올려야만 입양이 가능케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그냥 버려지는 핏덩이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법 이전엔 입양기관에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1년에 200명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적에 올리지 않고, 법원의 다른 서류나 입양기관에만 기록을 남겨서 영구 보존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호적엔 올리지 않아야 미혼모들에게 주홍글씨가 남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종단 차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행을 장려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상구보리에만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하화중생을 위해 자비정신을 펼쳐야 합니다. 영유아원 시설을 설치하되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곳은 논산훈련소가 체계적인 반면 작은 부대는 조직적이지 못해 포교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전 입양법처럼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으니 개별 차원적 정책이 아닌 종단 전체가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의 갈등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신걸로 아는데, 우리사회 갈등 중재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비결을 알려주신다면요.

-갈등 대부분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장을 지레 짐작해 가로 막거나 소통이 부족해선 안됩니다. 기본적인 가치관 차이로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는 적습니다. 협상의 성공 여부가 협상당사자들의 태도에 달렸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입장, 내 주장은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한국 정치가 비난 풍토 때문에 파행을 훨씬 더 겪는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습관과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핵심 가치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은 양보할 수 없지만, 핵심가치는 국민민본 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의 차이는 대화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불교 공부가 이런 태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그동안 공천탈락, 교통사고 등 인생의 큰 고비마다 극복하며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 ‘공천제도’는 외국엔 없는 한국정치 구습입니다. 공천제로부터 여러 가지 파행이 발생한단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주권재민 국가라면 공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정당 정치를 이유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토대로 다소 불합리 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 탈락 때에도 좌절하기 보단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세로 대하신다는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잘 대하려는 태도만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모두 똑같은데 잠시 관직이란 감투를 썼을 뿐입니다. 차별심을 내는 사람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누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대하고 피드백을 반드시 주려고 노력합니다. 외국선 부탁이나 민원 피드백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은 정상적 행동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를 느닷없이 가보지 않은 길로 밀어 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영란법이 성공하면 사회 투명도가 높아지겠지만 나라마다 전통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접대 같은 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위선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 법을 만들당시 정책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엔 고위공직자, 즉 3급 이상부터 시작해 5급, 그리고 하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10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영향력이나 실행 가능성을 점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부터 시행해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언론서 반대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야단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모순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법이 초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한 겁니다.

대담 · 정리=김주일 부장, 사진=노덕현 기자

since1973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 농협 : 356-0976-5320-43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국6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300원
• 정가 2,000원 / • 규격:30.5cm × 31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7장

탁상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원
• 정가 2,000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법성 공덕’은 다할 수가 없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수행신심분〉을 설하고 난 다음 〈권수이익분〉을 설하면서 지금까지 설해 온 내용을 마무리하고 논의 수지를 권장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마하연, 비밀스런 법을 내가 이미 다 설했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여래의 깊은 경계에 바른 믿음을 내어 멀리 비방에서 떠나 대승의 도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이 논을 지녀 잘 생각해 닦아 익히면 최후에 가서 위없는 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법을 듣고 겁먹은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부처의 종자를 이어 받아 반드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논을 받아 지녀 뜻을 살펴 수행하되 하루 밤낮만 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가령 시방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각각 한량없는 아승지겁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성의 공덕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그와 같아 끝이 없기 때문이다.”

대승의 비장(秘藏)은 소승에서 설하지 않은 부처님이 숨겨 놓았던 법문이다. 기신론이 이것을 설해 대승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승(mahayana)을 총괄적으로 설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승을 수지하는 이익을 밝힌 대목이다.

만약 누구든지 지극히 심오한 여래의 경지에 대해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간직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 몸소 실천해 나가면 도(道)에 이를 수 있다고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세속적인 착한 일도 중요하지만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 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여도 그 공덕은 무량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법성의 공덕, 곧 진여 그대로인 마음의 공덕이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논의 내용을 헐뜯고 비방하는 죄의 과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어떤 중생이 이 논의 내용을 헐뜯고 비방하여 믿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 얻는 죄의 과보는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응당 우러러 믿을 것이요, 헐뜯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기신론은 대승의 믿음 강조

論 이해 · 실천하면 道 이르러

하지 않으면 깊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남을 해쳐서 일체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게 된다.

일체 여래가 모두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으며, 일체 보살들도 이 법으로 인하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간다. 마땅히 알아 둘 것이니, 과거의 보살들도 이미 이 법을 의지해 깨끗한 믿음을 이루었으며, 현재의 보살들도 지금 이 법을 의지해서 깨끗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들도 이 법을 의지해 깨끗한 믿음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중생들이 응당히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 한다.”

이 대목은 정법수호(正法守護)에 대하여 말해 놓은 것이다. 대승의 법을 믿고 따를 때 삼보의 종자가 싹이 트고 성장하여 법성의 다함없는 공덕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지런히 닦고 익혀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마감하였다.

마지막으로 끝에 회향게송이 붙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귀명게송처럼 논주인 마명(馬鳴)의 발원이 담겨 있다.

부처님의 매우 깊고 광대한 뜻을
내 이제 능력대로 모두 설하였으니
이 공덕 되돌려 법성과 같이 해서
널리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소서

기신론을 지은 공덕이 결국 중생계를 이롭게 하는 데 돌아가게 해 달라는 염원이다. 대승의 근본정신인 이타원력이 드러난 게송이다. 법성이 지니고 있는 본래공덕 그대로 중생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은혜로운 보시는 항상 즐겁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㊲보살이 행하는 보시

菩薩內自思惟。因於乞者得施快樂。使乞者得無上菩提為法施檀越。諸乞求者見菩薩大施。而問之言。為求何等而等行大施。菩薩各答言。我今不求人天果報聲聞涅槃。願得無上菩提拔濟一切眾生。諸慳貪者而作念言。菩薩云何能行大施心不疲厭。菩薩答言。我師三界尊悲念一切眾生。我今無以報師恩故施無疲厭。一切之樂無勝解脫樂者。我愛眾生勝愛解脫。我以愛念眾生欲令得解脫故修種種施。若生死不極苦者。我施終不求菩提。以生死苦故我施求菩提。拔生死苦者誰之所作。煩惱以業之所造作。使一切眾生以悲心為體常樂惠施。(보살내자사유。인어걸자득시쾌락。사걸자득무상보리위법시단월。제걸구자견보살대시。이문지언。위구하등이등행대시。보살각답언。아금불구인천과보성문열반。원득무상보리발제일체중생。제간탐자이작념언。보살운하능행대시심불피염。보살답언。아사삼계존비념일체중생。아금무이보사은고시무피염。일체지락무승해탈락자。아애중생승애해탈。아이애념중생욕령득해탈고수종종시。약생사불극고자。아시종불구보리。이생사고고아시구보리。발생사고자수지소작。번뇌이업지소조작。사일체중생이비심위체상락혜시。)

번역

보살은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걸하는 이로 인하여 보시의 즐거움을 얻었으니, 구걸하는 이가 위없는 보리를 얻도록 법을 보시하는 단월이 되리라’ 합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큰 보시를 보고 물어 말하되, “구하는 이를 위하여 어찌하면 동등하게 대할 수 있으며, 동등하게 큰 보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여 말하되, “저는 지금 사람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나 성문의 열반을 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상보리를 얻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가 생각하여 말하기를, “보살은 어찌 능히 대비심을 행하되 피로와 염증이 없는 것입니까.” 보살이 대답하기를, “나의 스승은 삼계에 존귀하시고, 자비롭게 일체 중생을 생각하시나니, 내가 지금 스승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보시에 피로와 염증이 없습니다. 일체의 즐거움이 수승한 해탈의 즐거움만 못하나니, 나에게는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수승한 해탈입니다. 나는 중생을 아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가지가지 보시를 닦습니다. 만약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지 못하면, 내가 베풀어도 끝내 보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생사의 고통 때문에 내가 베풀고 보리를 구하는 것이니,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는 일을 뉘가 할까요. 번뇌는 업으로써 지은 바이거니와, 일체 중생이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게 하면 은혜로운 보시는 늘 즐겁습니다” 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7품에서 중생이 보살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 하나는 어떻게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동등하게 보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대비심을 행하되 염증과 피로를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중생심은 친한 이에게는 좀 더 베풀고, 제 마음에 꺼리는 이에게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속성임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 제바라보살은 보살심은 서방정토에 태어나거나 성문연각(聲聞緣覺)의 열반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문연각의 열반은 성불과 더불어 열반사상인 대승불교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스승이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중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반을 삼기에 동등하게 중생을 대할 수 있고, 베풀어도 과보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니 염증과 피로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제는 지난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머묾없이 감춤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가자

떠나는 날

떠나는 날은
아플 것 같다.
짠한 멍울 속
그리움이
마음을 아리게 하여
하늘 한 번
땅 한 번
바라 다 보며
두어 방울의 눈물방울
흘릴 것 같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가슴 싸한 이야기 거리가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꽃잎처럼 지는 걸 지켜보며
서서히 떠나가리니
안녕이란 말을
차마 반쯤 남기며.

티베트에서 머물며 죽음을 앞당겨 쓴 글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나는 날의 자유를 실천하고 싶다. 훅, 불어 꺼져 버리는 호롱불처럼, 누구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마지막 그림자를 스스로 거두고 싶다. 지난 8월 13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우선 옮겨 보겠다.

“미국 캘리포나아주 모하이에 사는 41세 화가 베치 데이비스는 지난달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파티 초대장을 보냈다. 특별한 드레스코드도 없고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 출수 있는 파티였지만 한가지 규칙이 있었다. 절대 파티 주인공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데이비스가 직접 준비한 ‘생애 마지막 파티’였다.

데이비스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6월 미국 주 가운데 다섯 번째로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지 한 달여 만에 안락사를 택하게 됐다. 난치병인 루게릭병이 악화해 서 있을 수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데이비스는 안락사법이 통과된 이후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최후를 계획했다. 그녀의 계획에 따라 지난달 23~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파티에는 30명 가량의 지인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파티에 모인 이들은 첼로와 하모니카 연주를 감상하고 데이비스가 좋아하던 동네 피자집에서 사온 피자를 나눠 먹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를 함께 봤다. 데이비스가 자신의 옷 중에 친구들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나눠준 후 친구들이 유쾌한 패션쇼를 벌리기도 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친구들과 작별의 키스를 나눈 데이비스는 생애 마지막 일몰을 본 후 24일 저녁 가족과 간병인,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품을 투여받고 숨을 거뒀다. 루게릭병 진단 후 2013년 일본으로의 버킷리스트 여행에서 산 기모노를 입은 채 였다.(이하생략)”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두려워한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연합뉴스의 기사를 옮기며 41세의 화가여인이 또 다른 선지자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 이론으로는 화려한 논리를 펼 수 있으나 실천으로 옮기는 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지만 엄연히 둘이요,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진리라지만 불멸(不滅)의 꿈을 키우는 것은 진시황제만이 아닐 터이다. 수행자라면 삶의 길이만큼 내용도 개운하고 말끔해야겠지만 마무리의 자유로움도 완성해야 할 수행의 덕목일터. 다만 앉아 죽던 누워 죽던 물구나무서서 죽던 죽음의 마침표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논외(論外)로 접어두자.

오로지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밝고 맑은 빛으로 살 일이다. 꾸미지 말고 보태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물처럼 바람처럼 덜 집착하며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날마다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오늘로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갈 오늘이므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오늘의 삶의 주인공인 것. 머묾없이 지음 없이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것.

더디고 빠르게 올 것이 와서, 떠나는 날이 오게 되면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한 점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게.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1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 학 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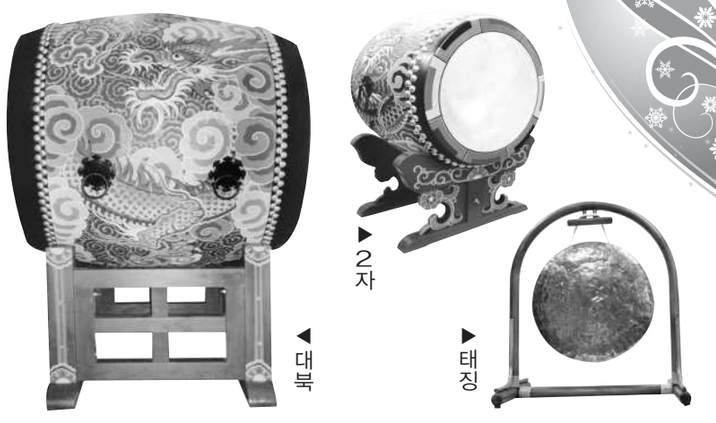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스승과 함께 名匠 반열 올랐던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⑰ 영철(靈哲) 스님

17세기 중반은 전국적으로 사찰의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명의 조각승들이 집단을 이루며 불상을 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은 300여명으로, 17세기 전반에 스승을 따라 불상 제작에 참여한 스님들이 불상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은 여러 계보에 속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하게 된다.

17세기 전반 대표적인 조각승 수연(守衍) 스님의 계보를 잇는 작가는 영철(靈哲, 靈澈) 스님이다. 영철 스님은 수연 스님을 따라 작업을 하다가 보조화승에서 다시 부화승이 된 조각승이다. 수화승으로서도 여러 작품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영철 스님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불상은 1건 20여 점이 조사되었을 뿐이다.

현재 서울 화계사 지장전에 봉안된 불상은 원래 황해도 배천 강서사에서 조성한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이다. 영철 스님은 스승인 수연 스님과 마찬가지로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사찰에 불상을 제작한 특징이 있다. 특히, 영철 스님은 1678년에 건립된 조계산송광사 사적비(曹溪山松廣寺事蹟碑)의 후면에 운혜(雲惠) 스님과 같이 시주자로 적혀 있어 송광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광사는 임진왜란 이후 부휴문도가 중창을 한 사찰로 영철 스님도 부휴문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각승 영철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이 된 배경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문헌과 사찰의 연혁을 적은 사적비(寺蹟碑)를 통해 스님의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 계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영철 스님은 1623년에 수연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불상 제작에 동원된 6명 가운데 3번째로 적혀 있어 이 집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또한 스님은 1634년에 수화승 수연 스님과 전북 옥구 보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익산 숭림사 봉안), 1636년에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1639년에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좌상(예산 수덕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 가운데 영철 스님이 대체로 2, 3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 불상제작과정에서도, 또 조각승 연륜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던 연배일 것이다.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얼굴 측면





17세기 중반 영철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649년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사진 왼쪽)과 황해 배천 강서사 목조여래좌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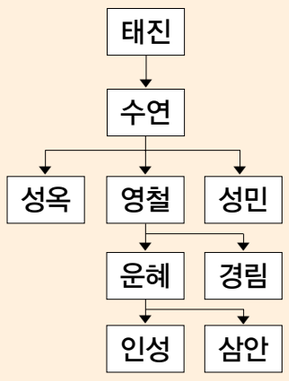
그 후 십년 동안 영철 스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고, 1649년에 수화승이 되어 인명(印明) 스님, 상운(尙云) 스님, 운혜(云惠) 스님, 옥순(玉淳) 스님 등과 같이 황해도 배천 강서사에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을 제작하여 해주 광조사로 이운하여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해주 광조사는 〈범우고(梵宇攷)〉에 "재황해도해주군수미산(在黃海道海州郡須彌山)"으로, 〈조선금석총람 상(朝鮮金石總覽 上)〉에 "재해주군금산면냉정리(在海州郡錦山面冷井里)"로 언급되어 있다. 그 후 1877년에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강서사에서 서울 화계사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어 강서사 → 광조사 → 강서사 → 화계사로 이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 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나오는 많은 시주자들은 17세기 중반에 황해도에서 활동한 스님과 불자들로 추정된다.

마지막에 언급된 제산지식(諸山知識) 41명 가운데 소요태능(逍遙 泰能, 1562~1649),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 취미수초(翠微守楚 1590~1668), 춘파쌍언(春坡双彦, 1591~1658), 풍담의심(楓潭儀諶, 1592~1665) 등은 임진왜란 기간에 의승군으로 활동한 17세기 초중반의 고승대덕이다.

특히, 소요태능은 1649년에 입적하였는데, 불상이 만들어진 9월 초까지 생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7세기 전·중반을 대표하는 고승대덕이 불상 조성발원문에 언급된 것으로 보면, 당시 강서사가 불교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불상 제작에 후원자로 참여한 이응립(李應立), 장응춘(張應春), 천묵(天默), 강대추(姜大秋) 등은 1665년에 건립된 강서사사적기 후면에 음각된 「사향초혼위전답기(四饗招魂位田畓記)」에 많은 전답을 사찰에 기부한 불제자들로 기록됐다.

영철 스님의 조각승 계보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영철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임진왜란 이전에 태어나 1610년대 수연의 밑에서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치고, 1620년대 불상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다가 1630년대에는 부화승으로서 불상을 제작하였다. 영철 스님은 스승인 수연 스님과 같이 인천 강화, 전북 옥구와 남원, 황남 배천 등의 사찰에 불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수로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특히 1649년에 배천 강서사 명부전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이 1650년에 수화승 운혜와 전남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영철이 빠진 것을 보면 그가 남부 지역보다 중부 지역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밝혀진 영철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23년부터 1649년까지이다. 영철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태전(太顚, -1600-1615-) → 수연(守衍, -1615-1639-)→ 성옥(性玉, -1619-1625-), 영철(靈哲, -1623-1649-), 성민(省敏, -1634-1639-) → 운혜(雲惠, -1649-1680-), 경림(敬琳, -1665-1680-) →인성(印性, -1660-1753-), 삼안(三眼, -1678-1740-) 등으로 이어진다. 수연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던 작가들이다.

조각승 수연의 계보 이은 제자
서해안 지역 사찰에 불상 조성
서울 화계사 지장전 불상 유일
순천 송광사 밀접했을 것 추정

영철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서울 화계사 지장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좌상이다. 화계사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이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가 101㎝로,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이다. 전체적으로 지장보살은 당당한 신체에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하다. 얼굴과 신체가 대략 1:3.2의 비례를 이루며, 계란형의 얼굴에 턱이 약간 뾰족하고, 이목구비가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을 따르고 있다. 또한 코가 짧고 높으며, 인중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목 밑에 삼도(三道)가 완만하게 새겨져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왼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 끝자락이 U자형으로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 뒤로 두 겹 접힌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며, 반대쪽 대의자락은 두 겹으로 접혀 수직으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편삼은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대의 자락 끝부분과 겹쳐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 끝자락이 S자형을 이루고, 세 번째 자락이 중앙으로 길게 늘어져 끝부분이 납작하게 접혀 있으며, 그 옆으로 파도가 일렁이듯 동일한 형태의 끝자락이 펼쳐져 있다. 왼쪽 측면은 대의자락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Y자형으로 접혀 있다. 소매 자락은 오른쪽 무릎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넓게 펼쳐지고, 안쪽에 몇 가닥의 주름이 새겨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 상단은 넓은 연판문을 중심으로 단정하게 접힌 주름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불상으로는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북한 지역의 배천 강서사 대웅전 수미단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이다.

이 목조불상은 손과 손목이 갈라져 있어서 나무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조여래좌상은 머리에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반원형의 긴 중간계주가 있다. 머리와 나발은 청색으로, 중앙계주의 테두리는 진한 청색으로 칠해져 있다. 계란형의 얼굴에 턱이 약간 뾰족하고, 좁고 오똑한 코와 얇은 입술이 다른 조각승이 만든 불상의 표현과 차이가 난다. 얼굴에 비해 귀가 크고, 목은 원통형으로 긴 편이며, 완만한 형태의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착의법은 석가불로 편삼을 걸치지 않아 오른쪽 손목이 노출되어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 끝단이 가슴까지 U자형으로 늘어지고 그 뒤로 두 겹 접힌 후에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두 겹으로 접힌 대의자락이 수직으로 흘러내리고, 왼쪽 어깨에 U자형으로 접힌 옷자락이 끝부분에서 뒤쪽으로 삐쳐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의 대부분은 대의자락이 접힌 부분이 측면에 늘어져 있는데, 배천 강서사 목조불상은 앞쪽에 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 끝자락이 짧게 늘어지고, 두 번째 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세 번째 자락이 복부에서 밑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왼쪽 무릎에 늘어진 소매 자락의 양 옆이 둥글게 접혀 있으며 밑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을 한 번 말아 도톰한 앙련형(仰蓮形)으로 표현되었다.

목조보살좌상은 화염문(火焰文)이나 운문(雲文) 등의 장식이 없어진 뾰족한 형태의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耳目口鼻)에서 풍기는 인상은 본존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보살상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보살상이 대의와 편삼을 걸친 것에 비하여 양 어깨에 천의를 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 천의식 보살상 중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은 2-3점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하반신에 걸친 치마의 상단이 레이스 같이 촘촘하게 접혀 있고, 팔목과 팔뚝의 팔찌는 조선전기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배천 강서사 봉안 목조여래좌상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상의 각진 방형 얼굴이 아니라 계란형으로 턱이 약간 뾰족하다. 특히, 가늘고 뾰족한 콧날과 좁은 인중 등의 표현은 조각승 사인이 1649년에 전북 순창 회문산 만일사에서 제작한 목조여래좌상(포천 동화사 봉안)과 가장 유사하다. 그런데 이 포천 동화사 불상을 만든 조각승 사인 스님은 1639년에 조각승 수연과 영철 등과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좌상(예산 수덕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강서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의 상반신에 걸친 대의(大衣)가 오른쪽 어깨에 걸쳐 짧게 늘어져 있는 옷자락 표현은 사인 스님, 영철 스님, 운혜 스님이 1650년 전후하여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활동한 무염 스님, 도우 스님, 승일 스님 등이 제작한 불상의 표현과 차이가 난다. 얼굴이 귀가 크고, 목은 원통형으로 긴 편이며, 완만한 형태의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또한 하반신에 걸친 옷자락의 가장 안쪽 대의자락 끝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된 표현도 1649년에 사인이 만든 순창 만일사 목조여래좌상(포천 동화사 봉안)이나 1650년에 제작된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왼쪽 무릎에 늘어진 소매 자락은 양 옆이 둥글게 접혀 있으며 밑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소매자락의 처리도 조각승 사인 스님이나 운혜 스님이 제작한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강서사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수연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영철 스님이 1650년대 제작한 불상이라 추정된다.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 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교방송 가을맞아 TV·라디오 개편

성전 스님 복귀 등에 초점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가을철을 맞아 힐링법문과 음악, 시사프로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9월 5일부터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는 '행복한 미소'로 오랫동안 BBS 애청자들과 소통을 나누었던 성전 스님이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로 청취자들에게 돌아온다. '월호 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오후로 시간대를 옮긴다. '지수 스님의 세상사는 이야기'는 주말에서 주중으로 확대하는 등 팬층이 두터운 스님들의 방송복귀와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BBS라디오는 새벽 4시, 우리말 독경을 시작으로 아침예불, 경전공부에 이어 대구 성관음사 일우 스님이 법화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일우 스님의 믿음'이 방송되며, 6시 '송담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참선'은 기존 30분에서 45분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와함께 BBS는 '힐링, 신행, 교육, 다큐'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TV 개편에 들어갔다.

BBS 관계자는 "앞으로도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꾸준한 콘텐츠 개발과 많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스님들의 라디오 진행으로 누구나 BBS라디오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카자흐스탄에 전한 韓 사찰음식의 맛

문화사업단, 강의 및 시연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서 사찰음식 강의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이뤄진 행사서 문화사업단은 5차례에 걸쳐 홍보행사를 펼쳤다. 사찰음식 전문위원 우관 스님 지도 아래 수도인 아스타나 시민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 23개국 해외 대사부인들을 위한 시연회가 진행됐다.

문화사업단은 행사서 △노랑파프리카 배추백김치 △오이백김치 △표고버섯감자찜 △토마토비빔면 △감자수제비 등 현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를 활용해 사찰 전통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윤호섭 기자**

화폭에 담아낸 근현대 선사의 '진면목'

홍나연 화가, 10월 1~21일 동화사서 근현대 선사 진영展

전통적인 담채·배채법 사용 근현대 선사 진영 18점 선봬 11월부터 일본서 전시회 개최



홍나연 작가의 작품 '향곡선사, 나옹선사, 월산선사, 성철선사 담소 나누는 모습'(140×110cm · 2작)



진제 선사(현, 조계종 종정스님)(110×170cm)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부터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들의 진영을 한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홍나연 작가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동화사 법화보궁에서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시회는 동화사의 대표 축제인 승시 축제와 함께 시작하며, 전시 기간에는 3년만에 개최되는 간화선 법회(10월 15~21일)도 봉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진영은 스승이 입적 후 존경과 추모의 정을 담아 스승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제작하거나 법통의 확인과 역대 스승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종파의 입지와 문도 간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이 같이 불교에서 선지식의 진영은 오래 전부터 이뤄진 중요한 불사이자 전통문화이다. 고찰에 조사당이나 진영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나연 작가의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진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시에 모셔지는 진영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를 필두로 혜월 선사, 운봉 선사, 향곡 선사,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선사까지 정통 임제종의 법맥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또한 한국 근현대 선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8대 총림의 만공 선사, 혜암 선사, 경봉 선사, 서옹 선사, 동산 선사, 석우 선사와 전강 선사, 석우 선사의 진영 등 총 18작품이 전시된다. 한국 근현대 선종사의 큰 획을 그은 향곡·나옹·월산·성철 선사 등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선사들의 진영은 대학 시절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홍나연 작가의 학술적 고찰과 불교 화가로서 오랜 습작이 합일을 이룬 것이다. 근현대 선사진영 작업은 전통적인 회화 재료로 상용되었던 비단을 이용하여 부드럽고 세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통 채색법인 담채기법으로 표현됐다. 특히 바탕재료인 비단의 특성이 워낙 민감하기에 고려불화에서 쓰이던 담채법와 배채법으로 부분 염색을 하듯 여러 번에 걸쳐 색을 스며들게 채색을 했다.

얼굴의 세밀한 표현은 조선 중기 초상화의 안면채색법인 붉은 색을 넣어 안면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기법과 후기 초상화의 안면 채색법인 운염법(運染法)·육리문(肉理文)을 함께 절충하여 표현했다.

이에 대해 홍나연 작가는 "이는 시대양식으로 도식화됐던 옛 진영들의 폐습을 줄이려는 본인의 연구 모색법"이라며 "각 표현기법의 특징을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에 적합하게 운용해 좀 더 사실적으로 시대에 맞는 미(美) 의식과도 맞닿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나연 작가는 동화사 전시 이후 11월부터 일본 기후현 니가츠가와 시립갤러리와 나고야 시정자료관,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순회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묵 만난 개구리, 禪을 보이다

김양수 동양화가 봄갤러리 초대 개인전

9월 27일~10월 5일까지 詩·畵 통섭한 작품 30점 전시 "개구리 그림 보며 희망 갖길"


개구리 몸짓(22X35cm).

개구리는 동아시아에서는 다산과 행운의 상징이다. 불교에서도 개구리는 신이한 영물이기도 하다.

선화(禪畵)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김양수 동양화가는 개구리 그림을 연작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신이한 개구리의 모습을 정적으로 보여준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구 봄갤러리에서 열리는 김양수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의 화제(畵題)도 '개구리들의 몸짓은 바람을 만든다'이다.

개구리들은 화폭에 담겼지만, 부산스럽지 않고 매우 고요하다.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수묵 담채가 가지는 특유의 여백도 정적인 매력을 더 한다. 여기에 김양수 작가가 틈틈이 적은 시는 그림과 함께 어우러져 대중에게 묘한 자장을 준다.

그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요소는 선(禪)에 가깝다.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 원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그림에서 읽혀진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통해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들의 몸짓에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명징하다. 바로 '내면의 편안함'이다. 동국대 재학 시절 4년을 아침 저녁으로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108배를 했던 그인 만큼 내면의 행복이 주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여실히 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심연을 찾아보길 바라는 것이다.

김양수 작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불신의 씨앗을 낳기도 하고 행복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면서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의 무늬에 따라 선율을 만들어 낸다. 개구리의 몸짓을 통해 바람에 맡겨진 꽃잎처럼 심연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053)622-8456 **신성민 기자**

전 세계 茶문화를 '한자리'서

명원세계차박람회, 9월 20~23일 COEX서 개최

릴레이 홍차 특강·시연 마련 서울무형문화재 특별전 등도

차는 세계인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이며 애프터눈 티, 티타임 등 다양한 문화가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 세계의 차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6명원세계차박람회'가 열린다.

명원세계차박람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100여 개의 차 생산자, 차 관련 문화업체와 관계기관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명원세계차박람회는 이전보다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진다. 특히 국내외 차 전문가 7인의 릴레이 홍차 특강인 '세계 홍차와 문화 국제심포지엄'은 주목할만 하다. 심포지엄에는 호주의 티마스터즈 대표 셰린 존스톤, 미국 차 작가 바베트 도날드슨, 중국 차산업농업위원회 사무총장 유웨이, 스리랑카 웨이얌바대학교 샨다나 아베이싱허 박사, 유양석 한국차학회 부회장 등이 참가한다. 또한, 일본 일다암의 제14대 대종장 쓰쿠다 이카의 일본 전통 센차 다도 시연은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일본 다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차와 관련된 서울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무형문화재 특별전'이 열린다. 특별전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생옻칠 신중현의 찻상, 소목가구 김창식 등을 비롯해 24명의 장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수한 명차들을 찾아보는 '세계명차품평대회'도 진행된다.

차문화 산업에 기여해온 인물들에게 시상하는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2016명원세계차박람회'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시상은 공로상, 학술상, 교육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인만큼 많은 분들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8.31~2016.9.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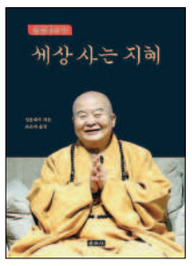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8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주)조계종출판사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인간불교 주창자… 원융한 자비 지혜 제시

성운대사의 세상사는 지혜

성운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 운주사 펴냄
1만 4천원





"불법과 인간, 사회는 하나다"
인간세상 주제 각종 평론 묶어
주제별로 명료히 정리해 놓아

성운대사〈오른쪽 사진〉는 인간불교의 주창자이자 대만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이 책은 일생동안 세간과 출세간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원융한 자비와 지혜로 방향을 제시한 성운대사의 가르침을 엮은 것이다. 불법을 인간세상의 일에 활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두루 미쳐 '타인에게 믿음을, 타인에게 기쁨을, 타인에게 희망을, 타인에게 편리함'을 주려는 인간불교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불교의 제창자, 대만불교의 살아있는 상징, 불교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여 현대사회를 인간정토로 변화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 성운대사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성운대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또 대만불교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운대사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 한국불교 불자들에게,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한국불교는 그간 중국불교, 일본불교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했지만, 대만불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대만불교를 중국불교의 아류로 여겨 낮춰 보거나, 정치문화적으로 대만과 크게 교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중국서, 그리고 화교권서 대만불교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하다. 중국공산당 성립 이후 중국불교계를 이끌던 대다수 고승들은 대만으로 망명했는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불교 또한 되살아나기 시작하자, 대만불교가 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불교의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당연히 인간불교를 제창하며 대만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운대사의 가르침도 중국불교계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현대 중국불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대만불교를 이해해야 하고, 대만불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성운대사이며, 그가 창립한 불광산사와 국제불광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운대사가 대만불교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 누구나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성운대사 자신의 말을 통해 제시한다. 성운대사는 이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이고 물질적 삶의 문제에 대해,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동원해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은 한평생 열심히 수도하는 승려가 되려고 했을 뿐, 수많은 사업을 벌이려는 뜻도 없었고 전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던,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만불교계서 가장 큰 사업을 성취했으며, 가장 저서를 많이 낸 작가인 성운대사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불교계 안팎의 여러 사안들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불법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개한 것을 엮었다.

성운대사가 생각하는 불법의 가장 큰 요체 중 하나는 이른바 인간불교이다. 성운대사가 강조하는 인간불교는 불법과 인간, 불법과 사회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현상과 모순, 그 해결점을 불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고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인간 삶의 근본 동력인 욕망과 그 욕망의 결정체로 탄생한 현대 첨단자본주의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불교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간 삶과 인간적인 사회, 즉 인간정토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불교와 인간, 불교와 사회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불교는 늘 인간의 일상과 사회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가 인간과 사회와 떨어져 자기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를 쇠퇴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기에 끊임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간불교의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세상의 각종 문제에 대한 성운대사의 평론을 모아 엮어낸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를 인간사(人間事), 비고사(悲苦事), 대중사(大衆事), 담심사(談心事), 지혜사(智慧事), 불가사(佛家事), 양안사(兩岸事), 대천사(大千事) 등 총 8부로 나눠 불교의 이치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성운대사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인간세상의 일과 이치에 활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게 하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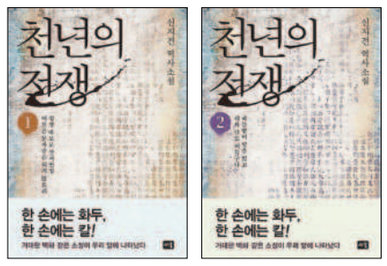
그리고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글'이란 난을 마련해 그 주제를 명료히 정리하고 있으며, 큰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 책을 편집한 고희균 교수의 회향글이 들어가 있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대만불교와 중국불교, 나아가 세계불교에 인간불교란 이름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운대사는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으로 이루어낸 문학적 필력으로 현실사회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감상과 견해를 끊임없이 밝혀왔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우리 한국의 불자와 독자들도 불교의 가르침이 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과 사회를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깊은 산속의 '화두' 끌어낸 역사소설

천년의 전쟁1, 2

신지견 지음 | 새움출판사 펴냄 | 각 권 1만 3800원



16세기 조선, 그리고 유 · 불 · 선 최후의 전쟁

유 · 불 · 선 사이에 천년에 걸친 전쟁이 있었다. 우리의 자생적 사상이던 선도(仙道)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에 주도권을 내주었고, 고려 때 전성기를 누렸던 불교는 다시 조선조의 성리학에 패권을 빼앗겼다. 오랜 전통을 지닌 불교와 선도는 유교의 폭압 속에서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산중으로 숨어들었으되 맥이 끊길 수는 없다. 16세기 조선, 젊은 선승들을 중심으로 사사(沙社)라 불리는 전국 규모의 비밀 결사가 은밀하게 조직된다. 여기에 잠적하여 오랫동안 내공으로 실력을 길러온 선도의 무리가 합세한다.

그리고 왕의 기운을 받은 여신이란 인물이 태어난다. 그가 바로 후에 대선사 서산(西山)이라 불리게 되는 휴정(1520~1604)이다. 그는 오랜 수행을 거쳐 불교와 도교의 젊은 영웅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성리학적 이념으로 국가의 패권을 틀어쥐고 있던 유교와 문명사적 전쟁을 벌인다. 천년에 걸친 유 · 불 · 선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 전쟁은 16세기 말에 벌어지는 임진왜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진입한다. 뜻하지 않은 외침으로 조선왕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그때, 휴정은 성리학이 하천민으로 만들어놓은 승려들을 승군으로 결집해 조선왕조의 왕권을 잇게 한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치지 않는 종교 간의 다툼을 그리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이 언제든 불러올 수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을 역동적인 필치로 되살려낸다. 소설 〈천년의 전쟁〉은 조선 중기의 서산이란 당대의 큰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거대한 역사소설인 것이다.

수호지 연상시키는 젊은 영웅들 활약

책 속의 무대가 되는 16세기 조선의 시 · 공간은 천년을 이어온 불교가 험난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시기다. 극악한 위기의 상황은 걸출한 영웅들을 탄생시킨다. 소설에는 묘향, 구월, 금강, 장수, 계룡, 가야, 두륜, 영취산 등 전국 각지서 활동하는 젊은 선승들이 대거 등장한다. 궁궐에 잠입해 왕후의 신위판을 훔쳐낼 정도의 협기를 가진 법준, 전국을 돌며 사사들을 집결해내는 지혜와 용맹의 자환,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의 괴력을 가진 하철굴암 마하까지 무예와 수행을 두루 갖춘 선승들이 그들이다.

여기에 천년을 이어온 도교의 전통적 내단(內丹)을 수련해 신선의 경지에 오른 운선선인, 그의 어린 제자로 축지와 무예에 능한 풍회, 그리고 미모와 무예를 겸비한 신혜, 자옥, 여윤 등 비구니들까지, 절멸의 위기에 몰린 정신사의 두 맥(脈)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영웅들이 대거 출현한다. 이들은 조선의 산하를 은밀하되 역동적으로 활보하며 유교의 폭압에 맞선 훗날의 거사를 도모한다. 가히, 양산박(梁山泊)을 중심으로 모여, 조정과 관료들의 부패와 맞서 봉기했던 '수호지'의 영웅들을 떠오르게 한다.

선(禪)의 흐름을 읽는 지적 즐거움

〈천년의 전쟁〉은 그러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젊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다. 소설의 큰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은 서산의 행적이다. 서산은 주로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의 전란 속에서 승병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승병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불교의 종지를 압축해 담은 〈선가귀감〉을 쓴 조선 선불교의 큰 인물이기도 하다.

서산 휴정선사의 삶 그린 구도역정 소설화
유불선 용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것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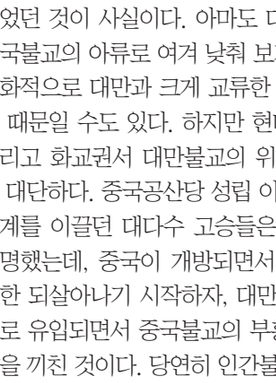
〈천년의 전쟁〉은 정심선사로부터 지엄, 영관을 거쳐 서산으로 이어지는 조선 중기 선불교의 흐름을 그 어떤 불교 이론서보다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산 중의 외떨어진 암자에서 이뤄지는 선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민중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적(知的) 탐구이기도 하다. 즉 〈천년의 전쟁〉은 고도의 정신적 깊이를 가진 선승들이, 어떻게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포함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느냐에 대한 거대한 스케일의 천착인 것이다.

작가의 평생 집념이 담긴 역사 소설

〈천년의 전쟁〉은 작가 신지견이 집필 투혼을 불사르며, 평생에 걸친 불교와 우리 정신사에 대한 공부를 일거에 쏟아낸 소설이다. 작가의 평생 지적 여정을 담아낸 금세기 최고의 역사소설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작품일 것이다. 그는 〈천년의 전쟁〉 집필을 위해 〈전등록〉과 〈선문염송〉 등 선불교의 경전들 속을 헤맸으며, 서산과 조선 선승들의 발걸음을 좇아 전국의 산하를 유랑하듯 답사했다. 그리고 해남의 대흥사 절집에 7년을 눌러 앉아 자신의 필생 역작이 될 〈천년의 전쟁〉을 써내려갔다. 신지견은 최근 서산 휴정이 저술한 〈선가귀감〉과 〈청허당집〉을 새롭게 해석하고 해설했으며, 〈금강경〉을 현대어로 재해석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0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화엄경5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운동으로 근육 만들듯, 명상으로 마음 키워요"

美 뒤파제 대학교, 학생들 위한 무료 명상교실 진행



미국 일리노이 주(州) 북동쪽에 있는 뒤파제 칼리지(College of Dupage)는 9월 둘째 주부터 명상 교실을 열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심신 스트레스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진출처=더 커리어**

9월 둘째 주 명상교실 열어
지역 주민들도 참여 가능해
100%무료로 진행돼 '눈길'

"지속 실시가 가장 중요…
모두에게 명상 잠재력 있어"

미국의 한 대학교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무료 명상 교실을 연다.

미국 일리노이 주(州) 북동쪽에 있는 뒤파제 칼리지(College of Dupage)는 9월 둘째 주부터 명상 교실을 열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심신 스트레스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뒤파제 대학에서 정신건강 · 상담서비스 팀을 이끌고 있는 마가렛 맥켄지 교수는 "명상에 관심있는 누구라면 모두 환영이다. 100%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자격도 소유한 맥켄지는 20년간 선불교 수행을 하면서 느낀 이로움과 명상의 가치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공유 하고 싶었다.

프로그램에선 명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행을 접하기 이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작업과 10분간 명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집단 상담 형식으로 '마음 나누기' 시간과 스몰그룹의 형태로 명상하는 시간도 계획했다.

이와 함께 맥켄지는 각 세션마다 몸에 집중하거나 화두에 집중하는 수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맥켄지는 명상의 힘을 믿고 있다. 그는 "나는 '삶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라는 화두를 항상 참구해오다 명상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처럼 골똘히 생각하던 나의 버릇이 명상가가 되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했다. 삶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시작된 긴 여행과도 같았다. 명상은 나에게 삶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던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전문 심리상담사인 데니스 에마노 교수는 명상을 통해 학생들이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명상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에마노 교수는 "실력 있는 명상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명상수행을 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면의 평화도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꾸준히 해온 명상 덕분에 학생들에게 명상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명상가이자 마음챙김 수행자로서 개인적으로 명상의 이로움을 맛보아서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마노 교수는 "정기적인 수행은 학생들이 더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스트레스지수와 분노지수를 낮추는 잠재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학생들은 자기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마노 교수는 "이 뿐 아니라 명상을 통해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결과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따른 괴로움에 대해 벗어날 수 있다. 순간에 상관없이 현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명상수행이 도움이 될까. 맥켄지와 에마노 교수는 매주 진행할 명상 수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에마노 교수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빠서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많은 구루들이 명상은 '마음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근육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 명상을 하면 마음의 힘이 커진다고 했다. 모두들 마음의 힘을 믿고 명상을 꾸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코피 아난 前 UN사무총장, 로힝야족 방문

9월 6일 미얀마 극우불교도 "외국인은 빠져라" 반발



코피 아난 前 유엔사무총장(사진 왼쪽서 두 번째)을 비롯한 자문단이 로힝야족 캠프가 위치한 라킨 지역을 방문했다. 코피 아난이 로힝야족의 문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voanews**

코피 아난 前 유엔사무총장이 이끄는 자문단이 미얀마를 전격 방문하며,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언론 'voanews' 등 외신에 따르면 '로힝야족 갈등해결을 위한 자문단(이하 라킨 자문단)'은 9월 6일 12만 로힝야족의 거주지인 라킨(Rakhine) 지역을 방문, 로힝야족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는 미얀마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로힝야족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 자문단을 초청하며 성사된 자리다.

이날 만남서 코피 아난을 비롯한 외국인 2명과 미얀마인 6명으로 구성된 라킨 자문단은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언급을 일절 삼갔지만, 로힝야족들과는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희망을 전했다고 알려진다.

이 자리서 무슬림종교지도자 큐와 잔라(Kyaw Zan La)는 자문단에게 "우리 무슬림들은 평화를 원한다. 무슬림과 불교도들이 수백 년 동안 함께 이곳(라킨)서 살아왔지만, 우린 지역민들과 절대 어울릴 수 없었다"며 "그들과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로힝야족 대표로 만남에 참여한 흘라민트(Hla Myint) 씨는 "라킨 자문단의 방문이 지역사회 내에서 로힝야족의 인권 회복과 탄압 중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자문단은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경찰들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아웅 밍갈라(Aung Mingalar) 지역도 방문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극우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를 비롯한 1000여 극우불교도들은 라킨 자문단의 입국부터 반대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코피 아난은 입국 직후 "평화와 화해 시도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로힝야족 탄압에 앞장서 온 극우불교도들은 "미얀마 내 문제에 외국인은 빠져라"며 국제사회 도움을 거부한 것이다.

시위대 중 아웅 테이는 "라킨 문제는 지역 현안이다. 코피 아난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가 우리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9월 내 미국 방문을 예정 중이다. 'voanews'는 "수치 장관은 종교분쟁 해결법을 찾기 위해 이달 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아름 기자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최초 불교국가 라오스 방문

미군 공습 피해 공식사과… 불발탄 제거 원조 등 '약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 7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 라오스를 방문한 가운데, 루앙프라방의 화트 시엥 통 사원을 방문해 승려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출처=GLOB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불교국가 라오스를 방문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6일(현지시간) 라오스에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와트 시엥 통 사원을 방문해 승려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라오스 외무부 관리의 설명을 들으며 부처님 본존상을 모신 대웅전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 중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전히 라오스 곳곳에 산재한 전쟁의 참혹한 잔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라오스의 미군 공습 피해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불발탄 제거를 위한 지원도 약속한 것이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전쟁 중 미군의 라오스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불발탄 제거를 돕는 것은 미국의 윤리적, 인도주의적 의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향후 3년 간 라오스 내 불발탄 8,000만 개를 제거하는 작업에 9,000만 달러(약 98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라오문화 전당서 라오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서도 "전방위적인 갈등 속에서 야기된 고통과 희생을 인정한다"고 다시 한 번 원조 의사를 밝혔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군수품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1964~1973년 총 9년에 걸쳐 베트남 국경 근처 라오스에 2억7000만개 소형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을 쏟아 부었다고 알려진다. 이 가운데 8000만개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이 작전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이밖에 오바마는 루앙프라방 국립 수파누봉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동남아 청년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소속 청년지도자 800여명을 상대로 연설했다. 또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8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이외에 아세안+3(한국 · 중국 · 일본) 정상회의, 아세안과 한국 · 미국 · 중국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열렸다.

이보형 객원기자

컴버배치, 틱 낫한 다큐 내레이션 맡다

다큐 영화 '나와 함께 걷다' 예고편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틱낫한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예고편서 불자 할리우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사진〉가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다.

불교언론 'Rion's Roar'은 9월 6일 베네틱드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가 내레이션을 맡은 틱 낫한 스님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와 함께 걷다(Walk With Me)'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다.

예고편 상영회 때 컴버배치는 "이번 내레이션 작업은 내 인생서 틱 낫한 스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 영화는 '마음챙김'이란 예술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내용이다. 나는 전 세계인이 이 아름다운 영화에 매료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세련된 디자인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으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풍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와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 롯데캐슬시리즈 /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
·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문의 080-866-1080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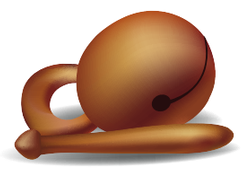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 증일아함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참나를 찾는 참선강의
9~11월 3개월간
매주(토) 14~16시 수업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친절히 안내
(천안 동면 광덕사)
010-5588-644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강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 / 현미누룽지 270g 150g / 보리와 현미 누룽지 / 병아리콩 현미누룽지

사주핵심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사주학 제10기
• 교육과목 : 사주학,매화역수,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이론 정립이 안되신 분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본인이 궁금한 사주를 즉석에서 풀이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정인역학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성불사 주지)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공 고
큰스님 모시고 참선 및
티베트 수행법으로
마음 닦으면서 시봉할 분
(단,운전,숙식가능한 분/남녀불문)
010-4905-05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010-5209-7420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시)
010-5579-0404

비구니 주지 스님 모십니다
– 포교원 운영 경험 많으신 분
– 노원구 수락산 입구
010-6874-37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조계종 공부하신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북 성주)
054-932-3169
010-8855-564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마이크 설치 에 대한 공사 안내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포교원 할 분 (서울 화곡동)
천도재 실력자 모심
부전스님 일할분, 찾는분
사찰매매 대출 전문
상신사(주) 서울명동유네스코옆
010-5381-1419 대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 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마음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정진해야 한다.

- 숫타니파타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속의 넓은 사찰 ◀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3,7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아름다운 대사찰 ◀
- 위치 : 부산근교
- 총부지 : 3,700여평, 주차장5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2평(목조 와가건물 8동)
- 명부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채, 대종각, 대법고
- 양도가액 : 30억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고양시 일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포교원 사용 , 법당, 공야간 종무실 등
- 5층 중 5층임 ●일산서구이며 현재 운영중임
- 분양받아 포교원 운영하시다 양도암. 시설비 포함
- 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조정가능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부지 : 200평 ◎ 대지 : 45평
◎ 인법당 : 50평 ◎ 인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요사 : 20평
◎ 양도 : 7억8천 ◎ 양도 : 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정산 자락
- 토지 : 79평(남향 뒤는 산)
- 자리 좋은 암자
- 건물 : 법당 23평, 요사채 24평, 산신각
- 양도가 : 2억 1천만 인수 (은행 1억 5천만))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김포암자(급)안내
- 현재 토굴 사용중
- 토지 405㎡ 사용, 건물 119㎡
- 마을 주변, 조용하고 도로접
- 토지값 정도로 양도함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건물
- 대웅전 15평
-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 3천

010-6628-8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대구 도심 포교당
(완벽시설-임대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 2층 요사채(60평) : 주방,공양주방, 해우소, 상담실, 주지실
- 3층(각 60평) : 종무실, 객실
- 공양주 없어도 운영 가능 (식기세척기, 반찬 냉장고 등 구비)

010-5421-336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절충가능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미아 4거리 부근
- 법당 30평, 공양간 약 4평
- 방 4개(대 2, 소 2) 화장실 2개(대1, 소 1) 창고 약 4평(대1, 소 1)
- 3층건물 3층
- 관리비(전기료 수도료외 없음)
- 가액 : 보2,500만원 임차료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426-6905

서울사찰안내임대
템플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 에어비엔비 운영할 분 환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15-38
- 대지 80평, 건물 100평 2층
- 천연기념물 271 굴참나무 소재
- 은퇴자분 주거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추천
- 가액 : 8억, 임대협의

010-7452-4725

청주 도심사찰 안내
창건13년 청주 도심포교 기도도량
- 대지 : 60여평
- 건물 : 50여평
- 대웅전. 16아라한전. 산신각
- 요사채: 방5. 화장실2
- 아미타 대불 삼존불. 영험의 지장탱화
- 직접 방문 확인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010-6372-8968

사찰 안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진천군진천읍전망 매우좋음
- 1층 법당 60평, 3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범종
- 2층 60평, 방 4개, 거실2개 주방, 화장실, 기름보일러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화장실 2층 2개 1층 1개

010-5103-1325
010-5605-6235

사찰 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지하철역 5분거리, 재래시장 3분거리
- 삼존불, 흑탱화, 신중,칠성,산신,약사여래불
- 전자제품 CCTV 에어콘 2대, 냉장고 2대
- 노스님 건강관계로(치매)
-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함
- 가액 : 보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5400-9411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 건물 목조 기와 30평
- 대지 100평
- 참고 : 면소재지에서 3.5㎞ 권리승계임
- 가액 : 6천만원

010-3189-8745

농 가 주 택
- 위치 : 경북 영양 한적한 곳
- 농가 30평, 대지 206평
- 남향 하천접, 도로 양호
- 다용도
- 가액 6,800만원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성(요지)신축사찰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3층 건물중 2층 약 80평
- 방 5개(주방,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교통편리
- 가액 : 보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4805-5950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장 근교
- 3층 24평 대웅전 삼존불 2층 24평 극락전 삼존불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무, 선세 350만원
- 부처님 조성 법보시
- 시설비 2500만원

010-6368-656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가주로 78-2(성내 2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 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법당외에 방4개
- 주위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법당 : 삼존불, 후불 탱화, 산신 및 후불탱화, 신장 탱화 인수시에는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보 500만원, 월세 50만원

010-6667-8819
010-9087-4813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8억 5천 (주인직접)

010-4130-0606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2층 법당 50평 욕실 1층 공양간 20평, 실외화장실 2
- 시설, 집기 일체, 시설비 없음 즉시 법회가능
- 가격: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8676-34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답사후 절충

011-9551-33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권리금 없음

010-2575-9876
010-9129-597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 대지 : 54평
- 대웅전3존불, 산신각, 공양간, 탑2기, 방 2칸, 친견실 별도
- 주택가 위치로써 조용하고 깨끗함, 근평 2년
- 가액: 2억7천만원 (융자 7천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9563-6787
055-246-8858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찰(문화재 보유)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 바다조망
- 건물 : 5동중 1동 2층 약 80평 신축
- 대지: 약 3,500평중 400 종교 용지
- 시내와 5분거리에 있으며 산중과 같음 위장에 양호한 약수가 나오는 곳임
- 본 사찰에서 유물이 약 40점이 발굴된 곳이며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
- 현재 불사 진행중이며 불사에 관심이 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010-4491-55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여천동
- 평수 : 1층 약 70평
- 법당 : 완전구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9880-261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 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 : 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터) 안 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 (‘긍정심리학스쿨’ 대표)

〈4〉 성찰하는 습관 ㊤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멈춤의 미학’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치열하게 일하면서 동시에 강한 감정회복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시간을 내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쁠 때에는 좀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어느 외국 잡지에서 기업의 여성 중역들에게 “당신에게 ‘사치’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위를 차지한 대답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역들에게는 넓은 주거 공간이 사치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2위는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드어웨이(Hideaway)’라고 해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위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쉴 수 없다 보니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것.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손에 넣은 여성들이 선택한 최고의 사치는, 바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글로벌 기업의 리더나 엘리트 사원들 역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미국인 상사는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점은 그의 시간 활용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그는 먼저 간밤에 미국 본사로부터 도착한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나 다른 팀에서 보내온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고 결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출근할 무렵에는 혼자 하는 업무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부하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회의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저녁 6시 무렵에 귀가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자녀들을 재운 뒤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독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상사에게 개인적인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기 전까지의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스케줄도 잡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 잠깐의 휴식입니다.

세계적 리더들의 휴식법

〈뛰어난 리더는 왜 멈춰서는 것일까(The Pause Principle: Step Back to Lead Forward)〉에 따르면 진정한 리더는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일부러 잠깐 멈춰서는 습관을 들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리더는 창의성과 변혁을 추구하고, 매니저는 정확한 답안을 내놓도록 훈련받지만 리더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가끔 멈춰서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 중에는 혼자 정기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젓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정신없는 일과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지요.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느긋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멋진 고성(古城)을 찾아가 방 하나를 빌려 명상을 하며 지내는, 이른바 ‘리트리트(Retreat)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도승이 하던 집중 명상을 IT 기업 등 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마니아라면 남극 대륙으로 떠나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아프리카의 고급 호텔에 머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 즐기는 것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가장 큰 휴식 될 수 있어 빌게이츠 · 스티브잡스 등 세계적 리더도 많이 즐겨”

일본에서는 시코쿠 지방의 헨로 길(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 중 하나인 고보 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신성한 기운이 서린 88곳의 성지를 순례하는 길)을 따라 순례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NHK 방송 프로그램 〈클로즈업 현대〉에서도 ‘시코쿠 헨로 1,400킬로미터, 증가하는 젊은이들’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험준한 대자연 속에서 40일 이상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걸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연구 조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앞으로의 인생과 커리어 방향을 결정할 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잡념을 떨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산가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절 일 년에 두 차례씩 미국 북서부에 있는 격리된 장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Think Weeks(생각하는 주간)’라는 리트리트 휴가를 보냈지요.

그곳은 세면대와 냉장고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고, 식사도 정기적으로 배달되지만 빌 게이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간부나 친구는 물론 가족이 연락을 취하는 일조차도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혼자가 된 빌 게이츠는 가장 먼저 평소 바쁜 일상에 쫓겨 좀처럼 보지 못한 사내 극비 리포트를 정독했다고 합니다. 리포트 내용은 대부분 미래 테크놀로지에 대한 예측이나 차세대 상품에 관한 제안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100편 이상의 리포트를 독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나 IT 업계의 미래를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이 ‘지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은둔형 휴가’는 빌 게이츠에게 늘 혁신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톱에서 인터넷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도 역시 Think Weeks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휴가를 떠남으로써 급변하는 IT 업계에 대한 압박감과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빌 게이츠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긍정적인 은둔형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은둔형 휴식으로 기분전환

대기업 증권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 사원 N 씨는 30대 초반에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일이라 느닷없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만난 상사가 까다로운 사람인 데다 부서의 업무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N 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담당하는 고객 수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도 건당 30초 이내로 제한하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나날이 피로는 쌓였고, 회사에 대한 불만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름의 효과적인 기분 전환 습관을 만들어 어떻게든 역경을 극복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퇴근 후 술자리나 회식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퇴근길에 취미 삼아 운동을 했습니다. 백화점 옥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풋살을 했는데, 적당히 인원수만 채워지면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운동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사사건건 얽혀 있는 직장 동료와 교류하는 것보다 잘 모르는 사람과 부담 없이 운동하는 게 N 씨에게 더 맞았던 모양입니다.

주말에는 혼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월요일부터 시작될 주가의 흐름을 조용히 예측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직장 업무를 해내면서도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은둔형 휴식’을 취한 것이지요.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 (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 점안의식, 각종 파불의식, 각종 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배종훈의
명상카툰



바로 부처

부처의 상인지 보살인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형상인지 알 수 없는 석물들이 가득 늘어선 운주사를 걷는 것은 늘 나를 행복하게 한다. 불교든, 공부든, 삶이든 심각해지고 무거워질수록 진리와는 멀어진다. 진리는 자명하고 명징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시(詩)'와 같아서 단 한 장면, 한 표정에 몇 권의 책에 담긴 내용 이상이 담기기 때문이다.

안개 낀 아침 사람 없는 길을 걸으며 석탑과 돌부처를 만나면 누구나 본래 각자가 지니고 있는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한 부처도 특별한 깨달음도 없으며 결국 본래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불교다. 곧 자신이 유일한 존재임을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즐겁게 말이다.

모든 것은 늘 즐겁지도 않고, 늘 우울하거나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인연 안에 있음을, 그렇게 늘상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영원불변한 절대 진리의 다양한 모습일 뿐임을, 그것이 바로 부처이며, 나 자신임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비스듬히 쓰러진 듯 기대선 돌부처가 희미하게 웃고 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시계, 스마트 워치 ㊤

추억을 훔치는 소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지희 시계에 관심 없어요."

가영이 말에 교실이 술렁거렸다.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 워치로 시간을 확인하며 종례가 길어지는 것에 불평을 쏟아놓았다.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희를 봤다. 아이들은 가방과 사물함을 열어 각자의 소지품을 꺼내놓았고, 지희가 잃어버린 시계는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아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교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원 버스에 타야 했다.

가영이 말이 맞았다. 시간도 잘 맞지 않는 오래된 태엽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최신형 스마트 워치였다. 티머니도 안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없는 시계를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선생님 제가 다시 잘 찾아볼게요.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니까요. 얘들아, 미안해."

지희가 씩씩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도 내게는 정말 소중한 시계야."

지희가 속삭였다. 지수는 지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 알아. 그게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희가 잃어버린 시계는 그 애 엄마의 시계였다. 금색 도금이 벗겨진 오메가 시계였다. 지희 아빠가 엄마에게 청혼할 때 선물한 시계라고 했다. 지희는 그 시계를 좋아했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무얼 받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지희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시계를 달라고 했다. 지희가 좋아했던 것은 시계 자체보다는 시계에 깃들어있는 추억이었을 것이다.

종례가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나갔다.

"지수야, 잠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까?"

아이들이 지수 쪽을 흘끔거렸다. 선생님은 지수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숨을 두어 번 크게 쉬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이들이 지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니? 지수는 지희랑 가장 친한 친구니까. 지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지수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반 아이들 중에서 지희 싫어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밝고, 착하고, 재미있는 아이니까요."

"혹시 지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어디에다 두고 기억 못 하는 건 아닐까?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선생님은 신경이 쓰이는구나."

"지희가 물건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에요. 저는 지희랑 늘 붙어 다니고 지희네 집에도 자주 가거든요. 지희가 물건 잃어버렸을 때 선생님께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아요. 연필이나 필통 같은 사소한 것들이요. 누군가 지희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건 사실인데,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시계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지희는 자신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희가 연필을 잃어버리면 지수는 자신의 연필을 나누어 주었다. 지희가 새로 산 운동화를 잃어버렸을 때도 지수는 신지 않는 운동화 두 켤레를 주었다. 지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마다 지수는 자신의 물건을 지희에게 주었다. 지수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친구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수는 기뻤고, 지희도 불편해하지 않고 고맙게 받았다.



그림 · 강병호

지수는 지희와 늘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종종 지수와 지희에게 쌍둥이냐고 물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데도 쌍둥이거나 자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건 아마 이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지수와 김지희.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가 같았으니까. 지희의 부모님은 지수를 막내딸이라고 불렀다. 지희의 오빠와 언니는 지수를 친동생처럼 대했다. 지수는 그게 좋았다. 사람들의 오해가 아니라 정말로 지희의 쌍둥이 자매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똑똑.

지수는 커다란 집이 싫었다. 방마다 가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도, 집에서는 늘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밝은 소리로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방안은 물속처럼 컴컴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몸이 굳어버린 걸까. 엄마는 언제나 벽을 보고 잔뜩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지수가 볼 수 있는 건 활처럼 굽어 버린 엄마의 등뿐이었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안마 의자 위에 있었다. 지수가 들어오자 흘깃 보고는 다시 눈을 꾹 감아 버렸다. 지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한 아주머니 눈빛이 정말 기분 나빴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먼지 한 톨 없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단에 맞추어 요리를 하고, 빨래를 했다. 집안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머니는 완벽했다. 다른 아주머니들처럼 엄마가 발작을 해도 무서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로봇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철저하게 했다.

지수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아래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연필과 필통, 운동화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지수는 책가방 안의 속주머니에서 도금이 벗겨진 낡은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엄마, 아빠한테 이 시계 받았을 때 좋았어?"

"솔직히 좀 실망했었지. 세이코가 아니라서.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제일 비싼 시계가 세이코였거든. 난 네 아빠가 싸구려 시계를 선물한 줄 알았단다. 네 이모가 최소한 2백만 원은 넘을 거라고 해서 기절하는 줄 알았지 뭐니. 이모는 백화점에서 일해서 그런 걸 잘 알았거든. 그때 엄마 월급이 70만 원도 안됐을 때였으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는 눈치였어. 딸이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걱정했던 대로 그건 전부 아빠의 허풍이었단다. 결혼하고 보니 이 시계는 아빠의 전 재산이었어. 아빠는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팔아서 달랑 시계 하나를 산 거였어. 덕분에 엄마는 결혼하면서 실반지 하나도 받지 못했지."

"아빠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지수는 지희의 엄마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 내어 깔깔 웃었다. 시계를 풀어서 상자 속에 넣었다. 상자의 뚜껑을 굳게 닫으면서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 추억은 내 거야."

〈계속〉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대행 스님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전부 불바퀴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지내 오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글쎄 천도가 왜 생겼나 했더니, 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는 대로 이 도리를 가르치시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는 대로 함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49년이라는 건 무슨 어느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49년이라 합시다. 그렇게 설법을 하고 그렇게 행으로 보여 주셨고, 말로 듣게 해 주셨고 귀가 뚫어져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잘이 조잘이 붙어 가지곤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이구, 아이구! 나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몰라서 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잔뜩 그냥,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 집으로, 내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안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그 고덩어리가 전부, 인과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그냥 요만한 것들이 전부 화해서 큰 곤충으로 변해 가지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널려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중들이 귀찮게 무슨 천도야, 천도가. 만날 그냥 음식을 괴어 놓고 염불하고, 뭐 해 가지고 오면 만날 잔뜩 벌여 놓고선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디다. 이렇게 만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글쎄, 모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생전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글쎄,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그 배가 오겠습니까? 자기가 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한생각 끄덕하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자니 내 마음이



그림 · 최주현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혼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 서 있다니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기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빠져 죽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 영혼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도 없죠.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홀랑 벗겨 놓을 수도 있고 홀랑 씌워 놓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세 번째는,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전부 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명들이나 은하계 혹성이든 별성이든 유성이든 행성이든 전부가 불 아닌 것이 없지요.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불성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율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율동을 하는 대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불바퀴로 배출이 된단 얘기죠. 왜냐하면 불바퀴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성도 전부 한두 군데 집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가 저기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자꾸자꾸 발전을 하고, 죽고 살고 발전하고 이렇게 행하고 돌아가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로 배출이 되느냐 하면 바로 불바퀴로 배출이 됩니다. 가만히 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불바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용도대로 끌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력을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데, 크면 큰 대로 끌어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끌어 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성은 별성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별성들이 바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율동을 하고 율동을 하면 바로 배출이 되고 에너지가 되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 속을, 불바퀴 소용돌이를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들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죽을까 봐 애쓴다는 그 점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두 늘비하게 늘어서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1단계와 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2단계와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는 3단계가, 단계 없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 한생각을 돌리면 1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3단계도 없건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런 고덩어리를 짊어진 채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그저 만날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만약에 살아서 열반이라는, 이름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를 못 넘어선다면 우리는 죽어도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니까 여러분부터 믿어야 하고 여러분부터 알아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남한테서 무엇을 받아야 하고 남한테서 무슨 행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쁘다 좋다,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벌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쁘고 좋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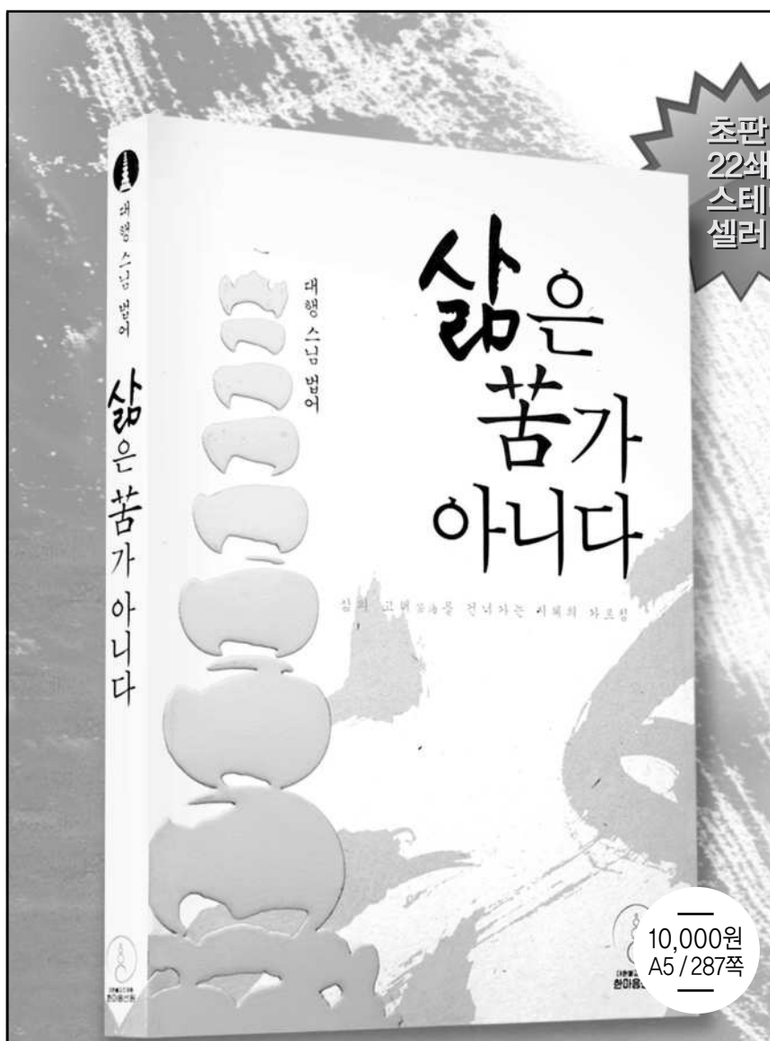
여러분이 마음공부라고 이름만 불러 놓고 진짜 행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안 계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흙 하나, 물 한 컵 이것도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억만 분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분이자 그 한 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공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상이 구족함으로써 삼십이응신으로서 수많은 생명들에 응해 주십니다. 하다못해 뱀 새끼가 '아이구,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뱀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찰나에 응해 주시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이 한생각에 저 우주 법계를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이요, 귀가 될 것이요, 바로 한마음이 전부 그걸 두루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횡설수설,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체계 있게 하지 못하고 말이 서툴러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잘 참작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멋쟁이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목마르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마시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 옳을까, 안 마셔야 옳을까?' 이러고 마십니까? 똥이 급해 죽겠는데 '내가 똥을 눠야 옳은가, 안 눠야 옳은가?' 하고선 계산하고 똥을 눕니까?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들의 법이 없다면, 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석존이라 할지라도 나는 석존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존을 받들어 모시되 내 가죽 속에, 내 골수 속에 넣고 참으로…,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첫째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한마음" 하면, "원" 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 바로 문수요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 화신이니라." 화신 말이에요. 여기 아프면 여기 만져 줬다가 저기 아프면 저기 만져 줬다가, 온통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보현신

☞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다

☞ 25면에서 계속

이자 화신이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니 바로 여러분이 마음 내는 거와 같습니다. 마음을 내야 움죽거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부처, 법신, 화신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한, 풀 한 포기가 있는 한, 물 한 모금이 있는 한 전부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옛날에는 나무를 동이 동이 이렇게 매서 쌓아 놨습니다. 산 밑에다가 치켜 쌓아 놓죠, 겨울에 때려고요. 봄에 때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동굴 속에 있다가 밤은 늦어지고 춥기는 하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부리에 차여서 발톱 반이 빠졌습니다.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리가 딴 자리가 없건만 내 욕심에, 뜨뜻하게 잘 욕심에 가다가 그랬구나.' 그 돌부리도 추상같이 호령을 하면서, 자리가 따로 어디 있기에 자리를 찾아가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썼습니다. 그러니 요런 돌덩어리 하나 부처 아닌 게 없고 법신 아닌 게 없고 화신 아닌 게 없습디다. 그러한데 어찌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론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술적인 이론으로써 해(害)를 보고, 정신계에 입각하지 못하고 나를 밝게 보지 못해서 올바르게 발전과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불나비 날아다니듯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자기를 먼저 믿고 물러서지 않고 찾는다면 찾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달마 대사께서도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했건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너부터 알라" 그 말 한마디가 이날까지 살아서 귀에 쟁쟁합니다. '너부터 알라' 한 소리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산에다가 송장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해골이 그냥 무더기 무더기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길 지나시다가 그 해골바가지를 보고 큰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이런 해골바가지에다가 큰절을 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 "얘야! 그런 소리 말아라.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또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거듭거듭 해 나왔느니라. 그러니 저 해골이 바로 우리 친척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그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이렇게 크나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마는 죽으면 바로 사대로 흩어져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그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은 다시 생산처로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모여서 다시 누구네 집의 자식이 또 됩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 또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식구로서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같이 모여서 살고 같이 한 철 놀다가 가는 친구들이죠.

내 마음이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쇠전에는 무쇠가 모여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모여 있고, 금방에는 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과일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놨습디다. 일체 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름과 한데 모였다가 다시 딴 구름하고 모일 때에 똑같은 차원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종지는 종지대로 놓고 접시는 접시대로 놓고 대접은 대접대로 놓듯이 그렇게 끼리끼리, 누가 모으려고 안 해도 끼리끼리 모이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모이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는 건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모이게 돼 있죠.

그러니 한 가족이 모인다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모입니다. "야, 너 이놈아! 왜 그러니? 공부를 왜 안 하니? 왜 그렇게 이탈을 해 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느냐?" 하고 온통 야단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저놈의 새끼, 나가서 죽지도 않아. 뭐 어째…." 이러거든요.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인연 따라서 서로 만난 인연들이죠.

그래서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 이렇게 모두 묶어서 같이 살자고, 같이 한 철 나자고, 우리 선방에 가서 한 철 나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 가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방에 가서 한 철 나듯이 나는 생활 속에서 그릇대로의 만남이니까 깡통끼리 모였으면, 깡통끼리 만났으면 깡통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 속상하고 그거 뭐, 말도 못하죠. 병고에 휘달리고 우환에 휘달리고 증오에 휘달리고 배신감 이런 데 또 휘달리고…. 요새 뭐 한두 건이 아니죠. 회사에 나가서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데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남이 미운 짓을 하더라도 '아하! 내가 모자랐을 때 나였구나.' 하시고 말을 막 하걸랑 '아하, 내가 모자랐을 때, 그전에 내가 말을 막 하고 몰랐을 때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모든 거를 몰랐을 때 나로 본다면, 크면 큰 대로 나로 생각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이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항아리 속에 붙어 사는 벌레밖에 안 됩니다.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지만 사생의 뜻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무리들이 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벗어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다 줄줄이 붙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평화를 가져오려면 우주의 섭류를 알아야 하고 우주를 평화롭게 하려면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섭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함으로써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베풀 수 있는 자비가 근원에서 샘물처럼 쏟아질 것이고 우리 국가의 역사도 빛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빚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거듭거듭 할 것이요, 세계가 평화롭도록 우리가 참 멋지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하기는 하나 지혜롭지 못해서, 불법을 탄압하고 모두 유교만 숭상했기 때문에 무심 도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한 번도 안으로 깊이 새겨 보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가 다르다, 저 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구라는 한 항아리에 붙어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를 뉘우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 깊은 속에 바로 자기 부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움죽거리면 법신이 되고, 몸이 움죽거리면 화신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데 계셔서, 내가 변소간에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바로 방에 계시고 들에 가면 들에 계시고 일을 할 때면 일하는 데 계십니다.

내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예전에 스물한 대여섯 됐을 때입니다. 서울에 백련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가 보고 여직껏 안 가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 봤을 때는 나한전도 있었고 대처 스님들이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멘트로 다가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자리가 있고 저 건너편으로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 있는데 날더러 "너,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그냥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 하나가 돼 버리니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요, 사흘을 이슬을 맞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팔다리가 움죽거려지질 않습디다. 그러나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빨리 풀리더군요. 죄가 있어서 다리가 비틀어진 거는 더디지마는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아주 다리가 빨리 풀려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너고, 또 다리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고, 풀리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는 그저 움죽거리기만 했죠. 그랬지만 그때 '그게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아이, 글쎄 마음은 체가 없다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했잖습니까? 나를 깨달아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보다 깨달아 가지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자기의 작업이 아주 더 어렵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더한층 편안하게, 그냥 살아나가는 대로 사시려면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 놓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사시는 게 다 주인이 사는 거지 여러분 몸뚱이, 산 송장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 송장도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송장, 몸뚱이가 없으면요, 허망함 속에서 참나를 찾지 못하거든요.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열반, 구경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나는 시자로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거기 다 맡겨 놓고, 거기서 다 하는 것이니까, 아프더라도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한마음 속에서 아프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해야죠.

그것이 과거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카세트란 말입니다. 카세트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솔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거든지 다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재입력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입력 하면 앞서 입력된 게 바로 없어짐으로써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바로 가환도 없어질 수 있고, 내 불편도 괴로움도 편안하게 아마 쉬어질 겁니다. 예전에 한암 스님께서 "3년만 눈 뜨고 푹 쉬어라." 아,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죽어야 너를 본다." 그래 가지고 죽으려고 차 밑에 말입니다, 밤에, 새벽같이 떠나는 차 밑에 몇 번이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섯 번, 일곱 번을 들어가도 못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었습디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저 여여하게 더 가려고 하지도 말고 더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내 한마음 주인공" 할 때, 한마음이라는 거는 왜 넣느냐 하면 이 자생중생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숫자가 많거든요. 의식들이 이 도리를 알면 한생각이 수천 마음, 그 모습 없는 모습으로도 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렇게 광대무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처님 아님이 없는데 여러분 한생각의 차이니까, 한생각 차이에 여러분은 중생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님, 여러 큰 부처님들께서도 또 여러 작은 부처님들께서도 다 한마음으로 토론을 했으니 그쯤 아시고, 이제는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바로 실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강의
010-3711-5072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불자 세상보기

녹조라떼 4대강 'No'… 청정성 회복해야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말이 많은 사업치고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4대강 사업으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단군 이후 최대사업이라 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최단기간 내에 착공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최대 비용으로 과연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였는지, 4대강 사업이 끝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엄청난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기대 이하였지만, 사업 전부터 걱정했던 여러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4대강의 효과로는 4대강 중간 중간에 설치한 보로 인해 물을 가둬둠으로서 물의 양은 증가하였고, 강둑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공원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이용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다 광범위하고 크다. 4대강 전체를 직강화해 구조물화 함으로서 기존의 하천생태를 붕괴시켰으며, 강의 모래들이 사라지고, 초지화했고, 준설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준설해야 하고, 하천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경지수로와 높이차가 발생하여 지하수위가 변화했다. 하천의 침식이 가중되어 하천수로 및 구조물이 위험해지고, 추가로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관리부재로 인해 부실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녹조가 창궐하여 맑고 푸른 하천이 녹차 죽 같은 짙푸른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직도 4대강의 환상을 그대로 되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은 단지 정치인일 뿐이고,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가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낙동강의 보건설로 인한 녹조문제이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천만 명 이상의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강들이 4대강 이후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탓이라고 날씨 탓을 하거나, 근거 없는 핑계만을 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에 8개 보가 건설되어 구간별 체류시간이 사업전의 18.35일에서 사업이후 163.94일로 8.9배(실측자료로는 4.1배)가 증가되

유속 감소로 자정작용 축소
녹조가 창궐해도 폐수 탓만
정책 실명·책임제 필요하다

는 등 급격한 하천환경의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났다.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결국 하천 내의 유속이 감소하면서 여름철 온도도 높아가고, 그에 따라 하천의 자정작용은 낮아지면서 녹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4대강 사업때문이 아니라, 폐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폐수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4대강사업 이후 폐수처리가 강화되면서 감소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만일 폐수 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장의 직무유기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에 와서도 왜 자꾸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양 사실을 왜곡하는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갑갑한 일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애초부터 4대강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많은 일부 보를 철거하는 등 4대강의 청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헤치고 다시 맞추어가야 하듯이 이제 4대강도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 그리고 다시는 4대강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증과 정책실명제와 책임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칼럼

신라왕경, 무령왕릉 그리고 병마용갱



신성민
취재부 차장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중국선종사찰 순례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져다 놓은 신문에 모 일간지에서 신라왕경 복원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접했다. 다음날까지 이어진 기사는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시 산하 전문기관과 민간 발굴업체가 신라왕경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총괄 전문 컨트롤타워가 없어 장기연구·복원계획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발굴사업들이다. 수십년이 걸리는 고분 발굴을 5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내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이 확산되자 문화재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굴과 복원은 모두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놨다.

신라왕경 복원 사업 논란을 보며 20세기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 발굴 성과이면서 최악의 사고인 '무령왕릉 발굴'이 떠올랐다. 1971년 7월 5일 공주 송산리 고분군 6호분 배수로 공사중 무령왕릉이 발견되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진다. 7월 7일 발굴단이 파견되고 7월 8일 발굴이 시작됐지만, 몰려든 기자들과 구경꾼으로 발굴장은 아수라장을 이뤘다. 기자들은 빨리 입구를 공개하라고 독촉했고, 결국 발굴단은 이례적으로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이후 17시간 만에 '개봉'에서 '유물 수습'까지를 서둘러 해치웠다. 큰 유물만 대충 챙기고 나머지는 자루에 쓸어 담아 나올 정도였다.

발굴보다는 그저 쓸어 담았고, 후유증은 컸다. 예컨대 무덤에서 나온 3천여 개의 구슬은 마구 섞인 채 수습돼 본래 형태나 용도를 알 길이 없는 채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최대의 발굴 성과가 최악의 발굴 참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김원룡 발굴단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들이 더 밀려오기 전 발굴을 끝내기로 작정해 밤을 세우며 발굴작업을 진행시켰고, 이에 고분이 갖고 있던 많은 정보들을 내 실수로 영원히 모르게 하고 말았다. 이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큰 죄가 됐다."

이번 중국 선종사찰 순례에서 개인적인 성과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직접 봤다는 것이다.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은 지금도 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1974년 병마용갱 발견 당시 소식 접한 일본과 독일은 발굴과 복원을 도와줄 테니 유적의 수익을 30년동안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발굴에 대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면 100년 뒤를 기약하자"는 게 이유였다.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되는 병마용갱은 발굴된 것보다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그럼에도 중국 문화재 당국은 함부로 발굴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만 왕보(旺報)는 9월 5일 "문화재 발굴·보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진시황릉을 발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왕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문물국과 과학기술부 등은 최근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진시황릉에 대한 공동 탐사 결과, 향후 30~50년간 진시황릉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발굴이 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재 발굴에는 적지 않는 재원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문화재 발굴은 어떠한가. 황룡사를 포함한 신라왕경 복원은 졸속 논란이 불거지며 잡음을 내고 있다. 더 나은 발굴을 위해 당장의 성과를 내지 않는 진시황릉의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한다.

社說

한국불교 자비 씨앗, 널리 퍼지길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의 숙원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동행은 9월 5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감보니 무와송가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보리가람대학 개교는 2013년 9월 첫 삽을 뜬 후 3년 만의 결실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지에 펼친 교육 불사이면서 모두 전국 사찰서 스님들 및 신도들의 후원을 통해 이뤄낸 쾌거라는 것이다.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한 금액은 총 43억4400만 원(8월 30일 기준)에 달한다.

보리가람대학은 척박한 대지를 초록빛으로 바꿀 미래 인재들이 양성된다. 총 4만여 평 부지에 교실 6개와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학교정원 등을 보유한다. 특히 전교생 기숙생활을 위한 남녀 기숙사 각 1동과 교사 관사를 비롯해 대규모 실습공간으로 농업실습장과 가축실습장을 갖췄다.

탄자니아의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60명 학생이 본격 수업에 들어가며, 3년 간 원예 등 교육을 받으며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입학비와 수업료는 전액 무료다.

한국불교의 자비의 씨앗은 아프리카 대지에 뿌려졌다. 이제는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잘 줘야 한다. 안정적 운영이 화두라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보리가람대학을 필두로 한국불교의 자비 씨앗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조계종 직장협의회 구성 환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계 최초로 이런 종사자들의 근무와 사업 참여 등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 9월 1일자로 총무원과 종무원조합이 각각 4명씩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노사협의회는 사회법상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라는 특성으로 그동안 구성되지 못했다.

그동안 교단 내 스님들 외의 재가근로자들에 대해 '노동'보다 '봉사'의 개념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에서 보면 고용주인 성직자와 생계가 달려있는 피고용주인 재가자는 출재가의 신분이 겹쳐 사회에서보다 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곤 했다. 혹여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면 봉사의식이 부족해서라는 등의 시선을 받곤 했다.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장은 불교 종무행정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통과된 사안은 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불교계로 보면 종권의 변화에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종책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계종 노사협의회 구성 결단은 종교계 전반에 노사문화 정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종교계는 불교계보다 노동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종교계를 아우르는 노사문화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각 종교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교리를 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노동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종교 내의 노동문제에도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제9회 선운문화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이 함께합니다

천오백년의 울림 — 상생 — Festival

일시 2016 09/24

장소 선운사 특설행사장 및 사찰 내외

가을산사 클래식의 울림 상생 콘서트

상생 클래식 콘서트 출연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이정화, 바리톤 송기창, 테너 하만택 외 다수

상생 클래식 콘서트 시간
19:00~21:00 선운사 특설무대

※**문의** | 063)561-1422

전체행사순서

행 사 명	진행 시간
경판이운	14:00~16:00
보은염이운	16:00~17:00
육법공양	16:30~17:00
리허설	17:00~18:30
예설	18:30~19:00
상생 클래식 콘서트	19:00~21:00

부대행사 : 사찰내외

행 사 명
고창군 직거래장터
꽃무릇 시화전
경판,인경본 전시
108보물찾기
셀카포토
체험부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관 선운사선운문화제봉행위원회
후원 고창군,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영가(신명,재난)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1 관찰한다
2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3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4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디자인,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 CO.LTD
문의 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 2층
www.mahayeon.com

부처님 탄생지에서 열반지까지

인도 네팔 성지순례



조기예약 할인상품

미얀마 6일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1월 4일 출발 (20명 출발)
₩ 2,090,000 (추가경비없음)

[마하연의 특별함]
특급호텔 , 국내선4회, 전용차량, 전용보트,
성지순례전문가이드

천불천탑 황금사원의 부처님나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대한항공 직항! KOREAN AIR

티벳/부탄/스리랑카
- 티벳6일/티벳 하늘열차 8일/동티벳 9일
- 부탄-네팔 8일
- 스리랑카 6일/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대만/홍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6일
- 베트남-캄보디아 6일
- 대만 5일/대만-홍콩 5일
- 태국 5일

중국
-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영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 6일 웨리크루즈

동유럽/발칸
- 동유럽4개국 9일
- 동유럽-발칸 6개국 9일